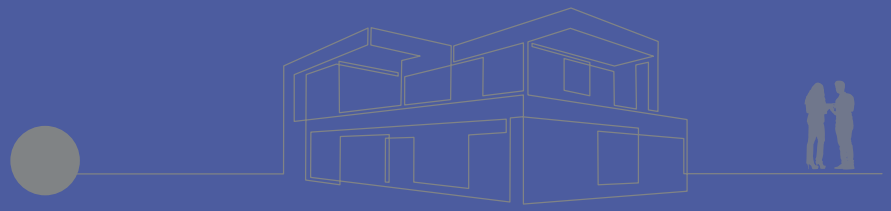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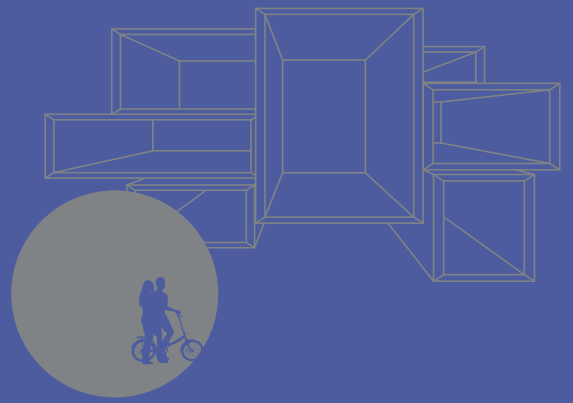
URBAN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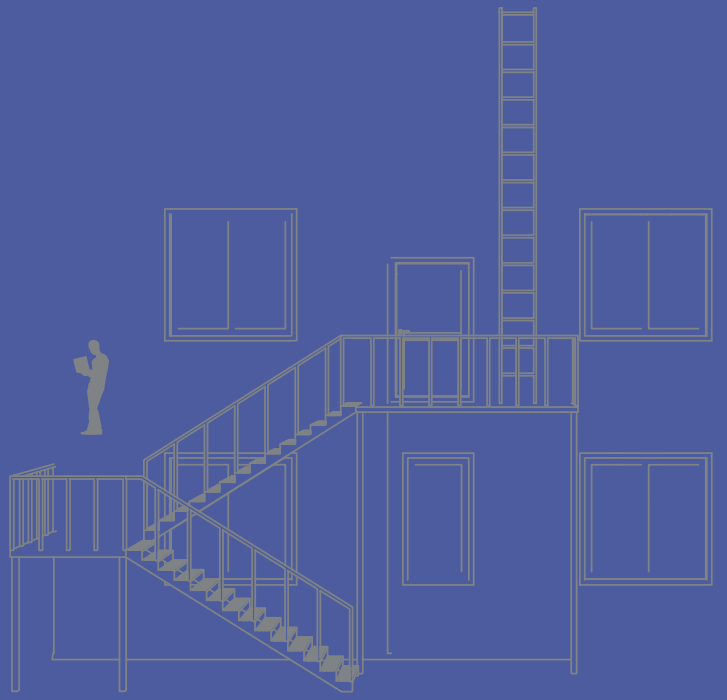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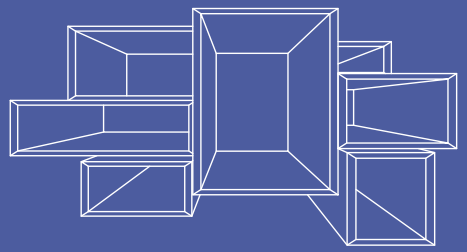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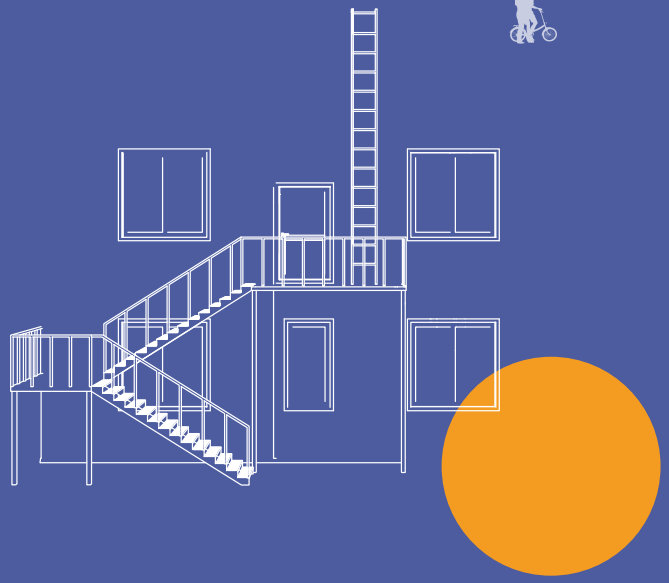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URBAN Alley







2025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CONTENTS

01 OVERVIEW

발간사	7
심사총평	9
주제 선정	10
공모 개요	11

02 WINNERS

대 상	소통을 '담'다	최한솔, 성창민	16
최우수상	씨앗 커뮤니티	진성원, 조예진	20
우 수 상	Root on Route	민경현, 한형석	24
우 수 상	도시결 2.0	윤새미, 박예진	28
우 수 상	collective alley	이진원, 단은중	32
장 려 상	Entrop-ing	우재현, 이찬원	36
장 려 상	살며시, 슬며시	임수연, 이채빈	38
장 려 상	OUR INTIMACI(Y):TY	신중빈	40

장 려 상 | 갈피를 꽂다	변준성, 오관민	42
장 려 상 | 하계동 멘토링 하우스	이승현, 하용식	44
장 려 상 | Creatively, Diagon-Alley	이기범, 노지환	46
장 려 상 | 우리는 모두 청년이었다 : 이곳은 청년만의 집이 아니다, 모두의 운동장이다.	임민혁, 황지원	48
장 려 상 | Fill the Alley, Feel the Alley: 하계동 경험친화형 청년주택	고건, 이다움	50
장 려 상 | Netwall House	공지현	52
장 려 상 | 스치는 하루, 머무는 인연	김나은, 정주민	54

03 GALLERY

갤러리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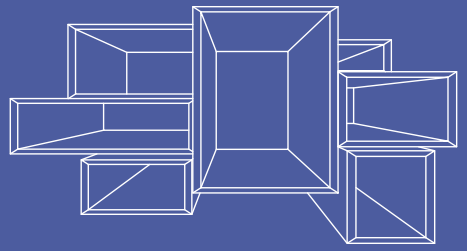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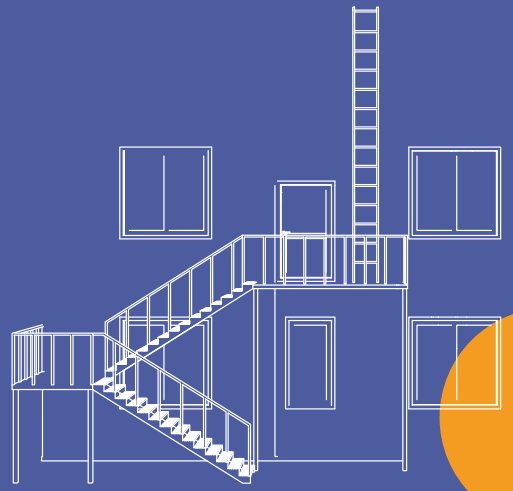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URBAN







01 OVERVIEW

- 발간사
- 심사 총평
- 주제 선정
- 공모 개요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 **이 상 조**

작품집을 발간하며

「2025년 LH 청년주택건축대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본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건축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제29회였던 「2025년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작품집을 발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인 시각과 실험적인 제안을 통해 미래 주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참가 대상을 청소년부터 청년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세대의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참가자분들께서 **'Urban Valley, Urban Alley' 라는 주제에 맞게 청년주택이 주거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도시와 조직을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골목과 이면도로를 일상적 도시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 무대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청년주택이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공공주택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LH는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상상력과 실천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와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작품집이 청년주택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과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참가자 여러분, 공모전을 이끌어주신 총괄 코디네이터 이중원 교수님,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주신 다섯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공모전 운영을 위해 고생해주신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앞으로의 도시와 건축, 그리고 주거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 중 원**

심사 총평

제29회 2025년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은 「Urban Valley와 Urban Alley」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 도시가 지닌 고유한 지형 조건을 다시 묻고자 하였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경사지형인 우리나라는 격자형 어반그리드로 도시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등고선을 따르는 콘타그리드는 지형에 순응하며 개발되어 왔습니다. 두 산봉우리를 잇는 남북축과 동서축은 도시의 터이자 건물의 터로 작용하였으며, 우리의 도시는 자연의 질서에 응답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한국 도시만의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의 현실은 이러한 자산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어반블록 내부의 4~8미터 폭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여전히 차량 중심, 주차 중심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행과 생활, 공동체의 장소가 되어야 할 어반앨리는 통과 공간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반그리드와 콘타그리드의 특성을 함께 이해하면서, 어반앨리를 공공성과 공동성을 회복하는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차세대 청년의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200여 점이 넘는 출품작에서 학생들은 콘타그리드와 어반그리드가 만나는 경사지형의 물리적 조건을 제약이 아닌 잠재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도시의 흐름과 지형의 맥락을 존중하며 다양한 주거 유형과 공간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어반밸리 내부를 미세하고 섬세한 건축적 개입으로 재구성한 시도는 기존의 기성 플래너와 디자이너들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반앨리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생활과 교류가 축적되는 공동의 공간으로 재해석한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골목길의 연속성, 입체적 공간 구성, 소규모 커뮤니티 형성 가능성, 그리고 도시 조직과 주거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고민이 작품 전반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한 건축 설계를 넘어 한국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일상 공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경사지형 도시가 지닌 공간적 한계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도시와 주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의 건축가로 성장할 학생들이 도시와 지형, 그리고 삶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은 한국 건축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이동훈 교수님, 연세대학교 이상윤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지음플러스 김성훈 대표님, 국토교통부 이지연 사무관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공모전을 준비하고 운영해 주신 LH 이상조 본부장님, 박영남 처장님, 엄기태 부장님, 전수현 차장님, 김윤정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이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도시와 건축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성실한 사유와 도전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참신한 시도와 높은 완성도로 새로운 도시 주거의 가능성을 제안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제29회 LH 청년주택 건축대전

주제 선정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대한민국의 도시 구조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유한 지형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전체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자연은 언제나 긴밀하게 얽혀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하천과 산길이라는 자연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다.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의 흐름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산지의 등고선을 따라 사람들은 길을 만들고 마을을 세웠다. **그 결과, 우리 도시의 길은 단순히 교통망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공동체의 기억이 자연과 함께 쌓인 흔적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 도시계획은 이러한 자연의 리듬을 간과한 채, 인공격자형 어반그리드(Urban Grid)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예로 들어 서울 강남은 약 500m×500m 규모의 도시 그리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어반블록 내의 이면도로(Urban Alley)는 주차장과 쓰레기적치장으로 방치되었고, 보행친화적 환경은 크게 저해되었다. 반면, 강북의 오래된 도시 조직은 더욱 유기적인 골목길 구조와 다층적인 커뮤니티 경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환경 속에서 청년주택은 단지 주거유닛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적 문제를 실험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사회적 실험장으로 작용해야 한다. 특히, 어반블록의 모서리 땅처럼 경계적이고 미분화된 대지는 도시의 다양한 맥락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새로운 도시주거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기회의 지점이 된다.

금번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이라는 사회 초입기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모여 새로운 도시적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이번 공모는 미래의 청년주택이 도시와 어떻게 접속하고,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작업이다.**

이번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질문들을 포함한다.

- 도로와 접한 건축의 1층 레벨에 제시하는 공용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어반그리드의 가로 경관을 살리고 어반블록의 이면도로를 보행친화적 환경으로 만드는 청년주택은 무엇일까?
- 청년주택이 단순한 주거유닛의 반복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공성과 연결되는 생태적, 사회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가?
- 청년주택의 공용복도는 단순한 통로의 기능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본 공모전은 청년의 새로운 시선으로 도시와 건축,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제안을 기다린다. 어반밸리와 어반앨리의 커넥션을 통해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삶을 실험해 보고, 도시라는 무대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상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29회 LH 청년주택 건축대전

공모 개요

목적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場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LH 청년주택건축대전」**을 시행함

코디네이터

이중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심사위원

김성훈 대표
지음플러스

박지영 교수
인하대학교

이동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상윤 교수
연세대학교

이지연 사무관
국토교통부

참가자격

설계부문 1팀 2인 이내 ,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만19~39세)

아이디어부문 1팀 3인 이내 ,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만9~18세)

대상지

위　　치_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1

대지면적_ 10,933m^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참가신청

참가신청 및 질의응답 기간
2025.6.16.~2025.7.4

작품접수

1차접수_ 2025.8.5~2025.8.6

2차접수_ 2025.9.17(*설계부문에 한함)

작품심사

1차 심사(서면평가)_ 2025.8.18

2차 심사_ 2025.9.24(*설계부문에 한함)

발표 및 시상

당선작 발표_ 2025.9.30

시　상　식_ 2025.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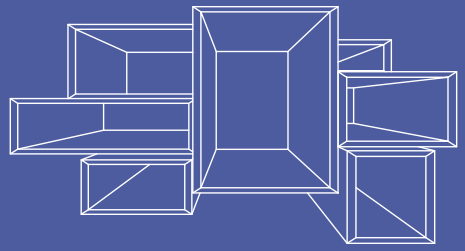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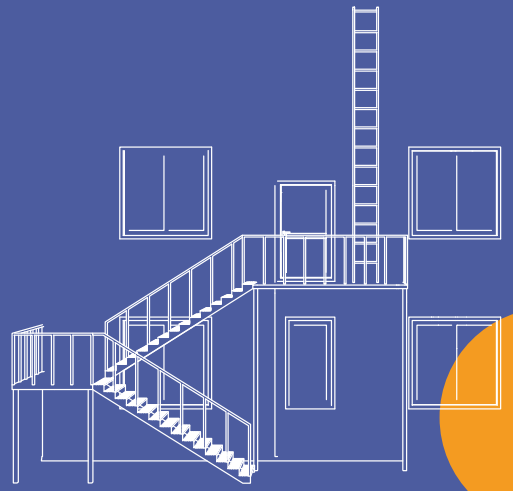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URBAN







02 WINNERS

- 수상자
- 수상 작품집

대상



소통을 '담'다

경상국립대학교 | 최한솔,성창민

최우수상



씨앗 커뮤니티

국립부경대학교 | 진성원, 조예진

우수상



Root on Route

경희대학교 | 민경현, 한형석



도시결 2.0

명지대학교 | 윤새미, 박예진



collective 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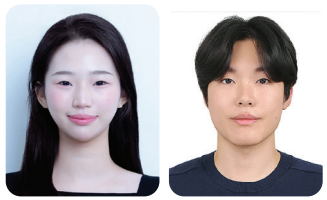
동의대학교 | 이진원, 단은중

장려상



Entrop-ing

세종대학교 | 우재현, 이찬원



살며시, 슬며시

대전대학교 | 임수연, 이채빈



OUR INTIMACI(Y):TY

명지대학교 | 신중빈

장려상



갈피를 꽂다

한양대학교 | 변준성, 오관민



하계동 멘토링 하우스

아주대학교 | 이승현, 하용식



Creatively, Diagon-Alley

성균관대학교 | 이기범, 노지환



우리는 모두 청년이었다 : 이곳은 청년만의 집이 아니다, 모두의 운동장이다.

청주대학교 | 임민혁, 황지원



Fill the Alley, Feel the Alley: 하계동 경험친화형 청년주택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 고건, 이다움



Netwall House

국립부경대학교 | 공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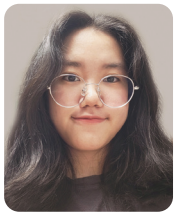
스치는 하루, 머무는 인연

창원대학교 | 김나은, 정주민

대 상

소통을 '담'다

경상국립대학교 | 최한솔,성창민





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온라인·디지털로의 전환, 개인주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구조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소통이 단절되며, 정보의 과부하, 초연결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소통에 피로도를 느끼게 된다.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소통에 대한 피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 역시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이에 따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소통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골목길과 이면도로 사이의 '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담'은 폐쇄적이고, 쓰레기 적치장같은 이미지로 여겨지지만, 한정적인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의 공간을 보장하며, 담장의 재질과 디자인, 담 사이의 화단, 벤치에 따라 개성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키네틱 모듈을 통해 담장의 높이와 형태를 조절하도록 계획하여 복도와 마당, 발코니의 개방, 즉 시각적 소통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치는 개인의 개성을 살리며 이웃과의 연결로 이어지는 소통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또한 대지 내부로 녹지를 끌어들이고 건물 매스를 분동하여 각 저층부에 공공프로그램 배치하여 매스 사이로 골목길을 형성하였다. 각 골목은 접하고 있는 공공프로그램에 따라 '세대 공감', '영감', '나눔'의 골목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갖는다.










SCALE



소통을 '담'다

: 골목길의 요소중 하나인 담을 이용한
지금의 세대에 알맞은 소통의 프로토타입 제시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56-1
대지면적　10,933m²
건 폐 율　41.7% (4,554.8m²)
용 적 율　171% (18,752.4m²)
층　　수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08대 (장애인 주차 8대)

PROLOGUE

: 과잉연결사회, 소통의 피로도

소통에 피로를 느끼는 사회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 온라인, 디지털 상의 소통 증가, 개인주의 심화,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소통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 간의 소통이 줄어든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현대사회가 **정보과잉, 과잉연결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소통에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각자의 성향에 따른 소통의 한계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필수로 소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이 집에서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소통에 대한 피로도가 발달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각자의 성향과 관계, 소통에 대한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소통의 증진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소통의 단절, 소통의 과다가 원인?

CONCEPT

: 골목길의 요소에서 찾은 담, 소통의 조절

소통의 정도를 조절하는 장치의 필요성

소통의 증진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소통의 정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피로도의 한계치가 낮은 사람**들은 집을 조용히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하므로, 조금 더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을 요구**할 것이고, **피로도의 한계치가 높은 사람**은 집을 이웃, 친구와의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조금 더 **개방적이고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형태를 요구**할 것이다.



골목길의 요소인 담과 처마

현대사회에서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담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며, 쓰레기 적치장과 같은 이미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담은 폐쇄적이라는 선입견을 넘어서면 도로 주변의 한정적인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각 집마다 다른 담장의 재질, 디자인, 담장 사이의 작은 화단, 창면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등은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면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요소**, 담장의 높이와 형태에따라 **개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다.

STRATEGY 02

: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복도, 소통의 촉매제

골목길이 된 복도

계단 또는 엘레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여정이 그저 어둡고 좁은 복도를 지나는 것이 아닌 각 집마다의 개성, 성향이 나타나는 담장과 마당이 놓여져 있는 골목길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각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복도는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관심은 소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 집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 개성이 담긴 골목길을 지나는 듯한 경험

SITE CONTEXT

: 도시와 자연의 경계



주변 시설

다수의 주거시설이 위치, 이로인해 교육시설이 밀집해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다.

반경 1km 내에 복서울 미술관, 서울시립과학관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고, 대지의 동쪽은 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지의 동쪽 면에는 현재 등록센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사업이 완공된 후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고려사항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간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공간, 녹지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STRATEGY 01

: 담과 처마의 변화, 조절 메커니즘

키네틱 모듈 - 담



1단계 높이 1800mm 정도로 눈높이 부터 몸은 가리지만 머리는 보이게 개방

2-1단계 높이 1350mm로 생성 이러한 시선의 중간 높이에 수 존재, 조도도 높아 적당한 차폐감

2-2단계 2-1과 같은 폐도에 공간, 높이지만 닫 - 차폐되지만 열린 형식으로 차폐

3단계 높이 900mm로 가장 개방적인 형태, 마당과 함께 사용하는 놀이시설 등등을 이웃과 공유

키네틱 모듈 - 처마



키네틱 모듈 - 난간



당 덕이에도 난간형식으로도 자유롭게 선택, 난간의 살 부분이 루버로 계획되어 개방감의 정도를 조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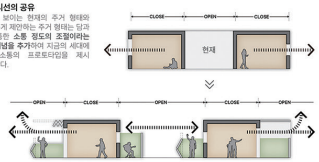
다양한 종고의 유닛이 조합되면서 발생되는 다채로운 높이 변화는 다양한 시선의 중간 높이로 인해 적절한 시야의 여백 즉 휴식공간이 되고, 이로 인해 소통의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소통에 부담 없이 여러번 시선이 마주치는 일시적 소통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다. 또한 다양한 높이 변화는 통해 기능을 부여 처마의 개방 정도 또한 조절 가능하게 계획하였다.

STRATEGY 03

: 현재 세대에 알맞은 소통의 프로토타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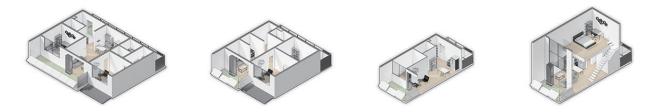
다양한 시선의 공유

단절되어 보이는 현재의 주거 형태와 닫힌 세롭게 제안하는 주거 형태는 담과 처마를 통한 **소통 정도의 조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지금의 세대에 알맞은 소통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UNIT

: 기본적인 유닛의 약간의 변화, 컴팩트한 유닛과 마당



▲ 확장형 (135m²)　▲ 기본형 (90m²)　▲ 원룸형 (45m²)　▲ 복층형 (68m²)

3-6인 가구에 적합, 기둥보 구조이므로, 벽체 변경이 용이하여 발코니와의 연계를 위해 거실을 넓게 하거나, 침실 3개로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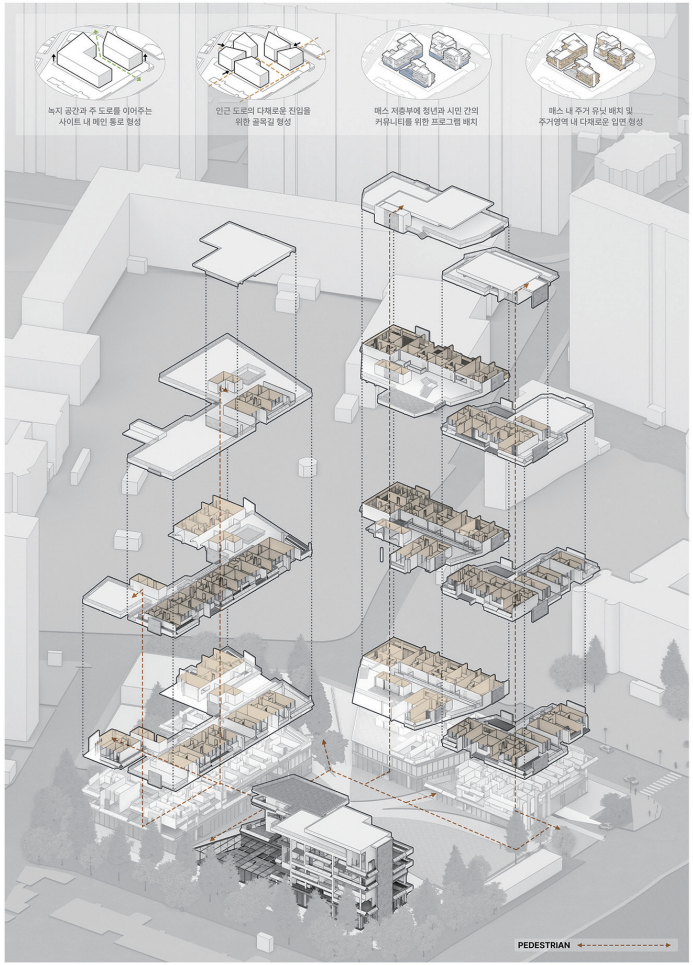
1-4인 가구에 적합, 신혼부부들의 사용하기 좋은 공간

1인 가구에 적합, 마당과의 연계 유무에 따라 방들 구획하는 벽체 제거가능

1-2인 가구에 적합, 높은 층고로 인해 개방감이 좋음



DESIGN PROCESS
: 다채로운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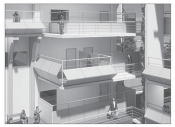


01.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담긴 입면



주거유닛 내부에 차이와 달의 요소를 적용해 외부로의 개방감에 있어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주거동에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담긴 다양한 입면이 나타난다.

02. 이웃간의 소통 촉매제, 마당과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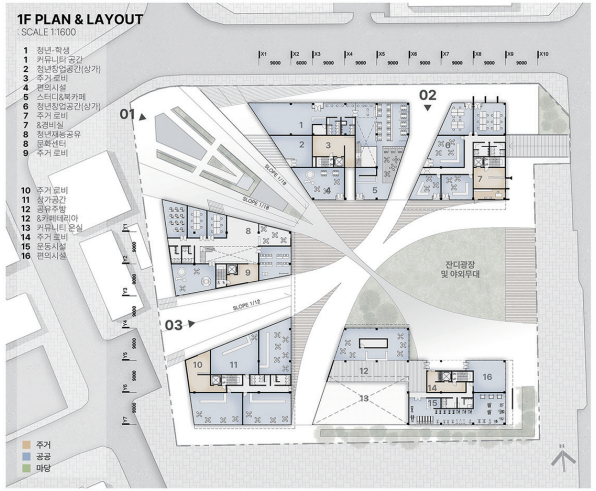
복도의 확장을 통해 복도와 주거유닛 사이에 담의 개념이 적용된 마당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담의 개방감의 조절과, 마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03. 도심과 녹지, 사람과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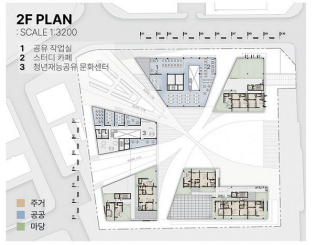


저층부의 녹지 공간은 지역주민와 공유 할 수 있으며, 대지 서측의 녹지를 도시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저층부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청년창업공간과의 교류 또한 이루어져 도시와 녹지가 어우러지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 대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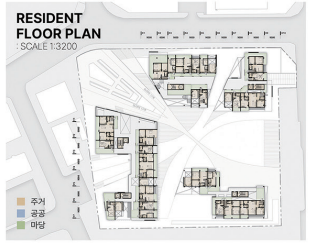
1F PLAN & LAYOUT
: SCALE 1:1600



2F PLAN
: SCALE 1:3200



RESIDENT FLOOR PLAN
: SCALE 1:3200



01 세대공감의 골목길



학생과 지역주민,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는 골목,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휴게 공간으로 구성

02 영감의 골목길



젊은 창작자와 창업자가 교류하는 골목, 창작활동과 학습, 소규모 청년 창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03 나눔의 골목길

시민과 주민 간의 커뮤니티와 상업공간이 어우러져 지역 경제 활성화, 주변 주거와 연계하여 플리마켓 등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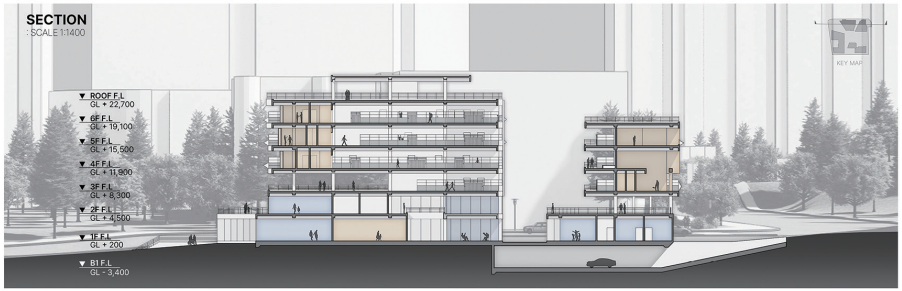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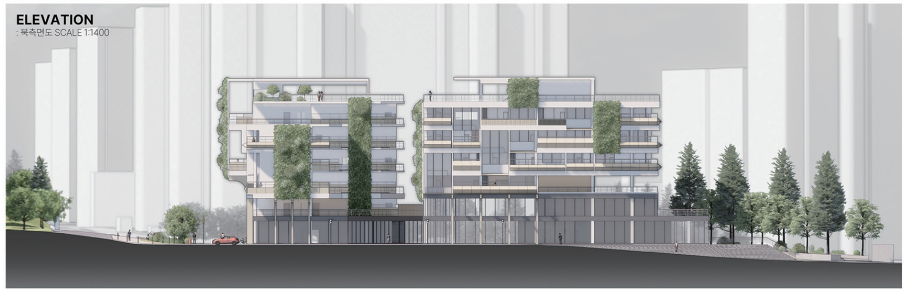




SECTION
: SCALE 1:1400



ELEVATION
: 북측면도 SCALE 1:1400



최우수상

씨앗 커뮤니티

국립부경대학교 | 진성원, 조예진





INTRODUCTION

최근 청년층의 우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회복과 성장의 공간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대상지 노원구의 '정원도시' 맥락 위에, 나무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며 성장할수록 단단해지듯 청년의 회복, 성장을 도모하는 "씨앗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씨앗 커뮤니티는 가드닝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씨앗 커뮤니티의 공간 구성은 식물의 생장 방식 '끝순, 곁순, 사잇순'에서 착안하였다. 주거 유닛은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모듈로 조합 가능한 가변형 정원이 제공된다. 이동식 모듈 벽체로 주거 내부와 정원의 영역을 유연하게 구획하며 바닥식과 벽식 화분 모듈을 통해 다채로운 정원을 구성한다.

저층부는 큰 도로의 개방성과 서측 주거밀집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씨앗 도서관'은 청년과 마을 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시설로, 씨앗을 대여한 뒤 키운 식물이나 다른 씨앗으로 반납할 수 있다. '마을장터'는 청년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 및 식물을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며, '가드닝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으로 이웃 간의 접촉 빈도와 깊이를 높여 밀도 높은 커뮤니티 관계망을 구축한다.











씨앗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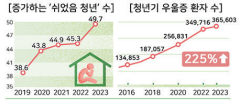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1
지역구분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0,933㎡
건축면적 : 5,635㎡
연면적 : 30,145.6㎡
용도별 면적 : 주거공간 (3,190.8㎡_10.5%)
커뮤니티 시설 (5,172.9㎡_17.1%)
공용공간 (6,190.9㎡_20.5%)
지하주차장 (9,553㎡_31.6%)
근린생활시설 (6,038㎡_20.3%)
건폐율 : 51.5%
용적률 : 131.1%
층수 : 지하2층, 지상8층
주택 호수 : 전용 25.6㎡ (48호)
전용 31.5㎡ (20호)
전용 75㎡ (8호)
전용 84㎡ (5호)
전용 78㎡ (4호)

청년들의 회복과 성장

[중가하는 '쉬었음 청년' 수] [청년기 우울증 환자 수]



최근 청년들은 '쉬는 청년'이나 'NEET족'과 같이 구직에 실패하고 포기와 가까운 휴식을 선택한다. 이는 청년 우울증, 중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기는 낙오나 단절이 아닌, 자신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이 시간을 거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과 성장의 공간이 필요하다.

대지분석

본 대상지가 위치한 노원구는 숲과 자연을 기반으로 정원도시, 힐링도시, 문화도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연이 도시 및 주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씨앗 커뮤니티



우울감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기에 청년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년주택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와 재연결을 돕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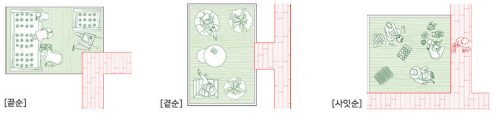
씨앗 커뮤니티를 통한 회복과 성장

나무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성장할수록 단단해진다. 이에 정원도시 노원구에서 청년을 회복, 성장시키는 **"씨앗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씨앗 커뮤니티에서는 가드닝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우울감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이다.

이를 기반으로한 커뮤니티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가 형성된다. 함께 가꾸는 정원은 일상의 의미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며, 씨앗 커뮤니티는 단절된 삶의 흐름을 **자연과 사람을 매개로 회복**시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씨앗 커뮤니티의 생장

씨앗커뮤니티의 공간은 식물의 생장 방식 3요소로 조합되어 성장한다. 식물이 이러한 요소를 통해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듯, 씨앗 커뮤니티와 그 안의 청년들도 이 3요소와 활동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공간 구성으로 **씨앗 커뮤니티**는 더욱 유기적이고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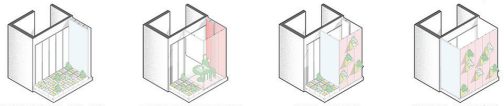
1. 끝순 : 가지의 끝에서 자라는 끝순은 많은 햇빛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의 성장을 선도한다. 씨앗 커뮤니티에서는 외부와 연결되어 생산 활동을 주도하는 공유 텃밭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곁순 : 가지에서 옆으로 뻗어 나오는 곁순은 식물의 구조를 확장시킨다. 씨앗 커뮤니티에서는 사적인 교류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3. 사잇순 : 가지가 나뉘는 분기점에서 자라는 사잇순은 성장의 흐름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에 따라 활동이 전환되는 가변적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주로 분갈이 작업 공간으로, 때로는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가변형 정원 모듈

주거 모듈에서 씨앗 커뮤니티를 위한 가변형 정원이 제공된다. 이 정원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모듈을 조합할 수 있다. 이동식 모듈 벽체를 활용해 주거의 내부와 정원의 영역을 유연하게 구획하며 바닥식과 벽식 화분 모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원을 채운다.



전 영역 바닥 화분 모듈 사용, 최대면적의 정원 활용
모듈을 통한 정원과 주거의 자유로운 구성
가변형 벽에 벽식 화분 모듈을 설치
전 영역을 주거의 확장, 벽식 화분 모듈로 정원 구성

주거유닛

주거 모듈은 공간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정원의 방향을 달리한다. 복도와 닿아있는 정원은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야외를 향한 정원은 소극적이지만 외부와 간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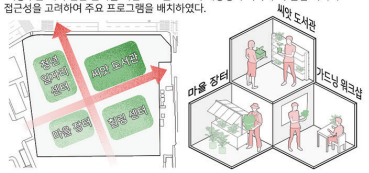
모듈 변형을 통한 유기적 정원길 형성



개인의 취향을 담은 정원이 가로의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존의 복도는 다층적 정원길이 된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장소로서 정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프로그램

저층부는 대지 인근 분석을 기반으로 큰 도로의 개방성과 서측 주거 밀집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1. 씨앗 도서관 : 청년과 마을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씨앗을 대여한 뒤 키운 식물이나 다른 씨앗으로 반납
2. 장터 : 청년들이 직접 키운 농작물 및 식물을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눔 수 있는 교류의 장
3. 가드닝 워크샵 : 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가드닝을 위한 교육 및 워크샵을 진행

씨앗 커뮤니티의 점진적 관계확장

공간 분할을 통해 마을주민, 입주민, 이웃간의 접촉 빈도와 깊이를 점차적으로 높여 밀도 높은 커뮤니티 관계망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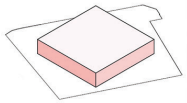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입체적 보행가로 형성
생작방식 모듈 구성으로 입주민의 자립적인 공동체 형성
정원은 이웃간의 소통과 자발적 화합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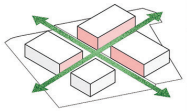
매스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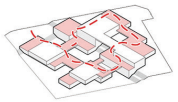
보행환경 고려해 그리드 생성



최대한의 열린 녹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배치



출입 동선을 고려한 보행축을 따라 매스 분할



테라스, 브릿지를 통해 각 매스를 연결하여 연속적 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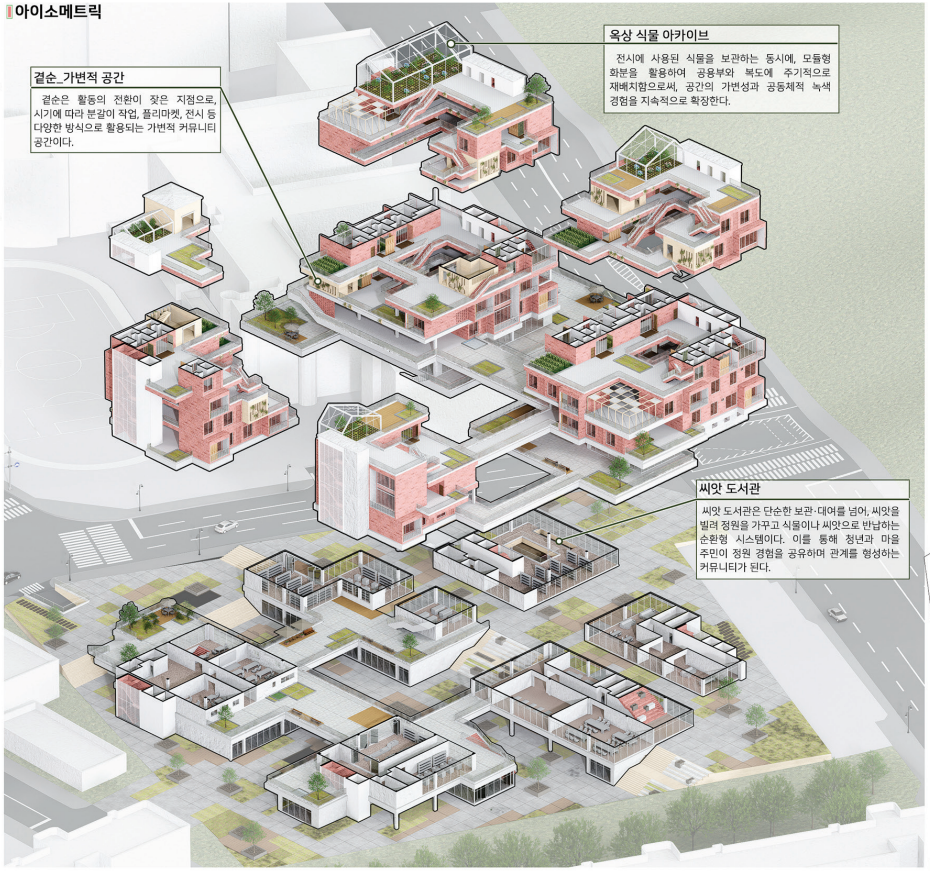


정원을 위한 일사량을 고려해 매스 분절



식물 생장 3요소 적용하여 씨앗 커뮤니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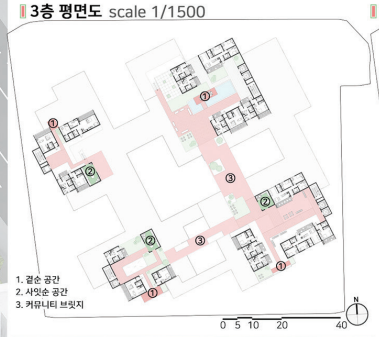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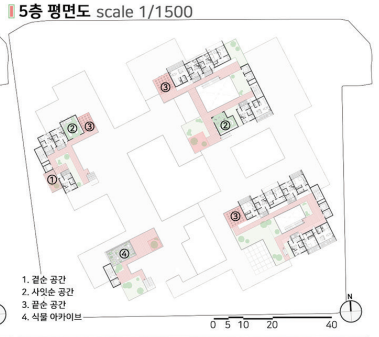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scale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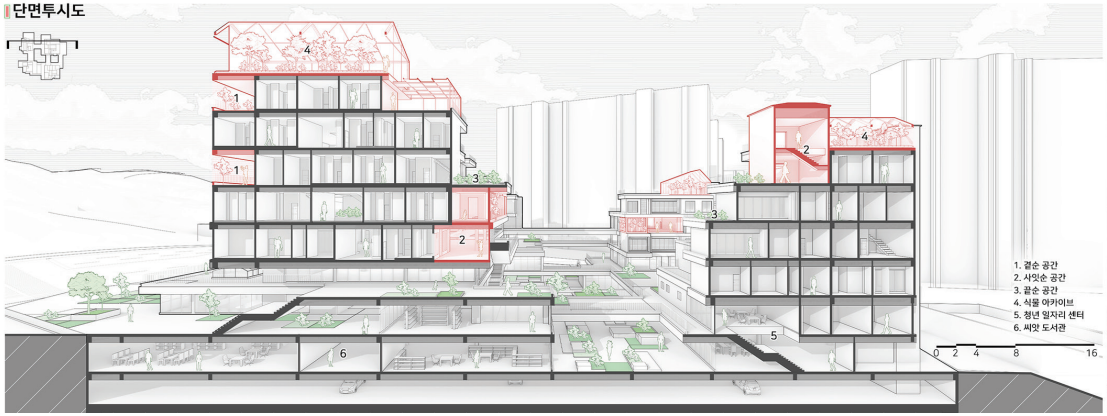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scale 1/1500



5층 평면도 scale 1/1500



단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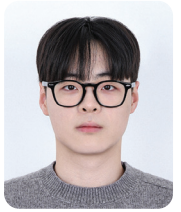




우수상

Root on Route

경희대학교 | 민경현, 한형석







INTRODUCTION

대상지는 단절된 어반그리드와 고저차 지형이 공존하는 경계부의 나대지다. 본 프로젝트는 ‘길 위에서 뿌리내리는 주거’라는 개념 아래, 기능을 잃은 도시 내부의 골목길(Urban Alley)을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대응하는 3단계 커뮤니티 구조와 자립형 프로그램 체계를 구성한다.

1차 커뮤니티는 단위세대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전제로, 복층형·육아형·작업실 병행형 등 다양한 유닛으로 자율적인 거주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2차 커뮤니티는 각 세대가 공유하는 복도와 계단실 주변에 공유 주방, 거실, 테라스 등 소규모 공용 공간을 배치해 비정형적인 교류를 유도하며, 청년의 고립감 해소와 느슨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3차 커뮤니티는 골목을 따라 대지 외곽에 청년이 직접 운영 가능한 소규모 상업 공간과 지역 교류형 플랫폼을 분산 배치하여 외부 유입과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이는 독립서점, 플랜트샵, 레코드샵 등 청년의 기획력과 자율성이 반영되는 자립 공간으로 작동하며, 진로 특강, 워크숍 등의 커리큘럼은 지역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외부 자원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지의 선큰, 브릿지, 오픈 골목길과 결합되어 보행 동선을 유도하고, 개방형 도시 커뮤니티의 프로토타입을 형성한다. 또한, 루버형 식생, 벽면녹화, 옥상정원, 테라스 플랜터 등 수직적·입체적 녹지 전략으로 자연과 도시의 기능을 통합하고 공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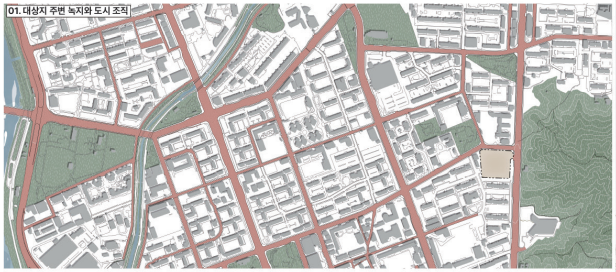








대상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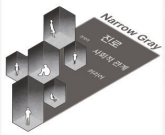

01. 대상지 주변 녹지와 도시 조직

대상지는 과거 마들평야와 산지의 경계부에 놓인 자생적 주거지였다.
대상지는 과거 마들평야와 산지의 경계부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였다. 하천의 흐름과 지형의 경사를 따라 컨투어 그리드가 먼저 자리 잡았고,
1970년대 사선형 간선도로의 도입과 더불어, 1990년대 7호선 지하철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 전반에 사선형 어반 그리드가 정착되었다.
이로 인해 남향 위주의 아파트 단지들은 불암산을 등진 측면이 벽처럼 드러나는 배치로 구성되었고, 단지 간 조망과 채광을 상호 침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슈퍼블록화된 단지들은 외부와의 보행 흐름을 단절시켰으며, 대지 동측의 간선도로는 도시와 자연을 가르는 물리적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서측과 동측에 각각 3~6미터에 이르는 고저차,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산기슭의 흔적은 향후 공간 설계에서 지역성과 지형적 특수성을 반영한 잠재적 기회의 지점이 될 수 있다.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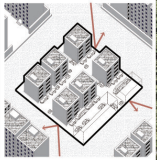
01. 불안정한 청년 주거의 현실

청년은 협소하고 건조한 무채색의 주거환경 'Narrow Gray' 속에서 살아간다.
면적의 문제뿐 아니라, 'Narrow Gray'의 폐쇄성과 단절성은 정서적 고립을 심화하고, 진로, 경력 형성, 사회적 연결망 구축 등 자립 기반 약화로 이어지기 쉽다.
자립의 출발선에 서있는 청년들은 불완전한 기반 위에 놓여 흔들리기 쉽기에, 일상 속에서 삶의 뿌리를 내릴 기회가 필요하다. 불안정한 경제 기반, 관계의 단절, 도시에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실감은 청년을 더욱 위축시키 때문이다.



02. 단절된 도시 구조

효율성과 속도를 우선한 어반 그리드는 도시 곳곳에 단절을 초래한다.
슈퍼블록은 배타성을 지닌 경계로 도시의 흐름을 막았고, 사람과 삶이 모이던 골목은 자동차와 쓰레기로 채워져 걷기 • 머무르기 •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을 잃었다.
어반 그리드의 한계를 깨고 단절된 블록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접점 공간, 그리고 어반 엘리를 사람들이 머물고 흐르는 사회적 기반으로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가치

정착 기반
청년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자립 가능한 생활의 토대와 주거 환경 조성

사회적 관계망
사람 간의 관계가 점차 확장되는 공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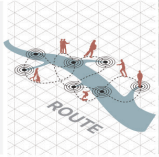
지역과의 상생
지역과 청년주택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간 및 프로그램

컨셉: Root on Route

청년과 어반 엘리는 서로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
Route는 도시의 흐름을 열어 커뮤니티의 기반을 만들고,
Root는 그 위에서 관계가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청년이 정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Route]
Route는 도시와 자연, 사람의 흐름을 단지 내부로 유도하는 열린 보행 네트워크이다.
닫힌 단지를 가로질러 자연과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프로그램과 공간을 배치해 도시 속 소통과 활동의 기반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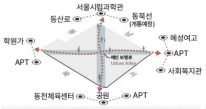
[Root]
Root는 주거 유닛에서부터 지역 연결까지 단계적으로 관계가 확장되는 커뮤니티 시스템이다.
작은 생활 단위에서 시작된 입주민 간의 교류가 점진적으로 지역 전체로 확장되며 청년이 머물고, 이웃을 만나고, 지역과 연결되며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최종적으로 자립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진로, 경험, 경제력 등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Root on Route
도시의 열린 길 위, 상생을 통해 뿌리내리는 청년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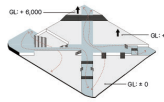
ROUTE 길 형성하기

1. 도시 흐름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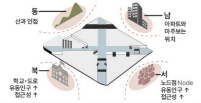
동북선·서울시립과학관·한글비공원 등 유동 경로와 기존 도로망을 고려한 메인 보행로→ 도시 흐름을 단지 내부로 유입

2. 단차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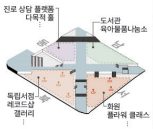
대지의 단차를 반영하여 길의 레벨을 +0m, +3m, +6m 으로 설정, 보행 동선에 높낮이 변화 부여

3. 대지 맥락 분석



주변 환경, 인구 유동성 등 인근 대지 맥락 분석
→ 북·서 방향이 유동인구가 많고, 남·동 방향이 정온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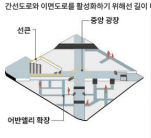
4. 가로 활성화: 대지 분석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배치



독립서점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청년 큐레이팅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유동 인구가 많은 북·서 대지 경계부에 1차적으로 배치하고, 내부에도 분산 배치하여 블록 내부로의 유입을 유도
세부적인 목적성을 가진 공간은 대지 중앙부와 남·동측 공간에 배치
→ 어반 엘리 위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용 프로그램을 분산 배치해 이용자의 다양성과 선택지를 넓히고, 유입을 유도하여 가로와 어반엘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촉진한다.

5. 가로 활성화: 어반 엘리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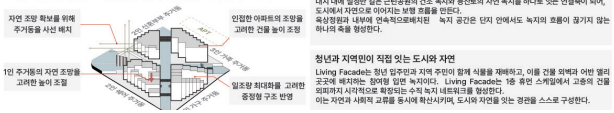
간선도로와 어면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길이 머물고, 쉬고, 걷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선큰
  산과 안접하지만 5차선 도로로 접근성이 낮아, 선큰 공간을 통해 산 조망을 확보하고 도로 소음을 차단한 휴식 공간을 조성
- 중앙 광장
  대지 내 결절점에 위치한 중앙 광장. 동선이 겹치는 공간을 청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합업 존(카멜레 존)으로 활용
- 어반 엘리 확장
  프로그램 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주는 어반엘리 확장
  → 걷고, 앉아 쉬는 골목길. 사람들 간의 사이를 좁혀주고, 친밀감을 높여주는 길

5. 주거동 배치: 주변 환경과 연계한 입체적 조정

주거동 배치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체적으로 조정하여,
자연 조망, 인접 시설의 일조·사야권, 단지 내부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6. 도시와 자연의 연결

길과 녹지로 이어지는 도시·자연 연결축
대지 내에 설정한 길은 근린공원의 건조 녹지와 등산로의 자연 녹지를 하나로 잇는 연결축이 되어, 도시에서 자연으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을 만든다.
육상정원과 내부에 연속적으로배치된 녹지 공간은 단지 안에서도 녹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

청년과 지역민이 직접 잇는 도시와 자연
Living Facade는 청년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식물을 재배하고, 이를 건물 외벽과 어반 엘리 곳곳에 배치하는 참여형 입면 녹지이다. Living Facade는 1층 휴먼 스케일에서 고층의 건물 외피까지 시각적으로 확장되는 수직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는 자연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확산시키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경관을 스스로 구성한다.

저층부 프로그램

청년 자립의 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진로 고민 해소와 고립감 완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활동과 교류는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어, 청년과 지역이 연결되는 기반을 만든다.

큐레이션 상업 공간 독립서점, 카페, 레코드샵, 화원

감각과 기획력을 기반으로 청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큐레이션 공간



청년 운영의 특수성을 더해 지역민의 관심과 유입을 유도하고, 진로·학업 등 고정된 경로 밖에 있는 청년에게 자생적 활동 기반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더해 유휴 청년층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공간이다.

진로 플랫폼 소통 공간, 워크숍 공간, 특강 공간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며, 조언을 주고 받는 공간



청년들이 가진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민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특정 분야의 경험을 가진 주체로 참여해 청년과 연결되며, 이 공간은 서로에게 배움이 오가는 구조 속에서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지역 내 관계망을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이 플랫폼은 청년과 지역이 진로·경험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접점이다.

가드닝 Living Facade

청년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식물을 재배하고, 이를 건물 외벽과 어반 엘리 곳곳에 배치해 지역의 경관을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형 입면 녹지



보도, 어면도로, 벽면 등 도시의 틈새를 녹지로 채워 걷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감각과 지역의 손길이 함께하는 공동의 도시 경관을 실현하며, 식물을 매개로 한 협력 활동을 통해 정서적 연결과 도시 내 완충 공간을 만들어낸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외관은 사람들의 재방문을 유도하여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만든다.

ROOT 뿌리 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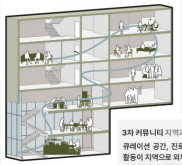
ROOT
뿌리가 토양과 닿는 범위를 점차 넓혀가며 견고하게 서는 형상에서 착안해, 청년들이 일상에서부터 관계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형성하는 커뮤니티 시스템

거리와 반경에 따른 세 단계의 커뮤니티

- 1차 커뮤니티: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교류로, 특정 클러스터 단위로 공유하는 소규모 공간이나 같은 층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
- 2차 커뮤니티: 조금 더 확장된 생활반경 내에서의 교류로, 주거동에 따라 같은 층이나 건물 전체 단위로 교류하는 단계이다. 입주민 간의 자율적 모임, 스터디룸, 라운지 등 더 많은 청년 입주민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 3차 커뮤니티: 가장 바깥의 광범위한 교류로, 저층부의 상업 공간과 플랫폼 공간을 통해 청년의 활동이 지역으로 외부 확장되며, 지역과의 실질적 연결과 자립 기반 형성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1인 주거동의 ROOT

1차 커뮤니티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교류
3개의 독립 유닛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고, 세 유닛이 공유하는 LDK 중심의 공유 공간을 통해 초기 일상 교류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세 명이 함께 쓰는 공유 공간을 통해 더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받는다.



2차 커뮤니티
확장된 생활 반경에서의 자율적인 교류
층 단위 라운지와 공용 공간을 통해 클러스터를 넘은 다양한 청년 간의 관계가 확장된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나 취미와 관련된 공동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교류의 기반이 형성된다.

3차 커뮤니티 지역과 연결되는 가장 바깥의 사회적 교류
큐레이션 공간, 진로 플랫폼, 가드닝 공간 등을 통해 청년의 활동이 지역으로 외부 확장되며, 지역과의 실질적 연결과 자립 기반 형성이 이루어진다.

복도

1인 주거동



독립된 3개의 클러스터 유닛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확장된 교류 공간
층 단위의 라운지, 휴식 공간, 공유 오피스 등 클러스터 간의 확장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복도. 큐레이션 공간을 공동 운영하는 쉐어형 청년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작업실)도 배치했다.

2인 주거동



신혼부부를 위한 여가·교류 공간
현관 앞 작은 마당부터, 작은 영화관과 티 라운지 등 비슷한 시간대에 스치고, 취향을 공유하는 소셜 스페이스를 통해 복도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로 확장한다.

3인 주거동



부부와 아이, 3인 가족들을 위한 복도 마당
층마다 복도형 마당에 공유 놀이 공간을 구성해 내부 중심의 느슨한 생활 공동체 형성하며, 나서형 계단을 통한 소지적인 공간 연결로 아이들과 보모들 간 그룹의 기회를 확장한다.

주거유닛 TYPE

청년 유형

'청년'은 단일한 집단이 아닌 진학, 구직, 결혼, 육아 등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이들의 연속체다. 모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 구조를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고 일상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1인 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2인 가구
신혼 부부
3인 가구
육아 부부

1인 유닛 - 일반형

세 유닛이 공유하는 1차 커뮤니티 (공유 공간) 이전에,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방과 화장실까지 온전히 갖춘 독립적인 주거 형태 구성


면적: 28.26 m²
세대수: 57

1인 유닛 - 확장형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청년을 위한 확장형 1인 유닛으로, 공유 공간 없이도 주거 내에서 충분한 생활 편의와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용 면적을 넓게 구성


면적: 37.37 m²
세대수: 44

2인 유닛 - 신혼 부부

안방 비율 확대, 드레스룸 배치, 발코니 확보 등을 통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은 부부에게 최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생활 소음을 고려해 세탁기는 실외에 분리 배치


면적: 60.52 m²

2인 유닛 - 쉐어형 복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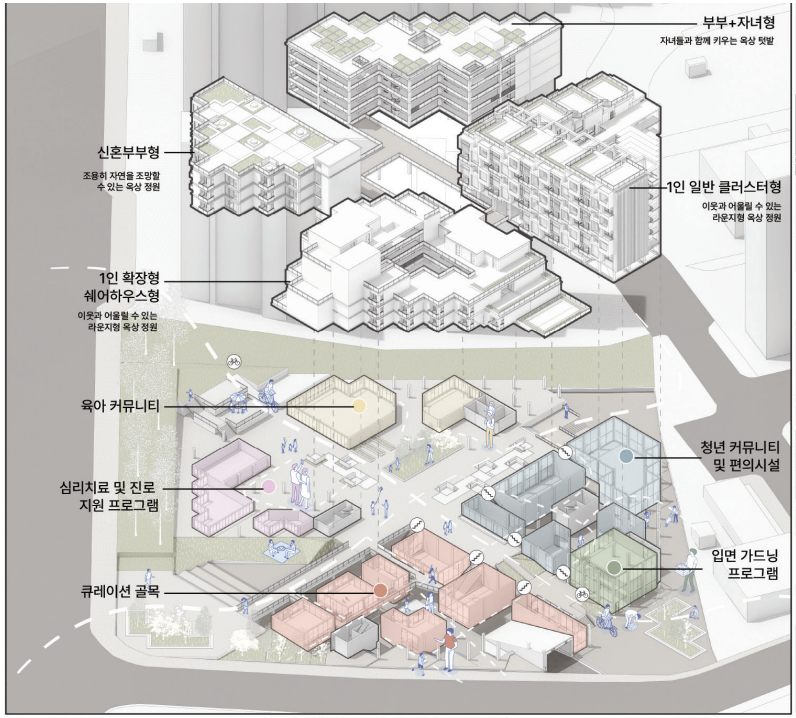
큐레이션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두 청년을 위한 복층형 유닛으로, 1층에는 공동 생활과 손님 응대를 위한 주방·거실과 넓은 테라스를 배치하고, 2층에는 각자의 침실과 화장실, 가볍게 마주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두어 개인성과 합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면적: 74.75 m²

3인 유닛 - 부부 + 영유아

복도 마당에서 놀고 들어온 아이가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현관에 세면대를 배치하고, 유모차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넉넉한 현관 공간으로 구성.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일체형을 확보


면적: 91.37 m²


부부+자녀형
자녀들과 함께 키우는 육상 텃밭
신혼부부형
조용히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육상 정원
1인 일반 클러스터형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라운지형 육상 정원
1인 확장형 쉐어하우스형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라운지형 육상 정원
육아 커뮤니티
청년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
심리치료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입면 가드닝 프로그램
큐레이션 골목


N
0 5 10 20 30(m)
① 선큰 광장
② 진로 및 심리 상담소
③ 공유다이닝
④ 어린이도서관
⑤ 육아물품나눔소
⑥ 크리에이티브 허브
⑦ 입면 가드닝 클래스
⑧ 청년 전시관
⑨ 카페
⑩ 독립서점
⑪ 공유 오피스


N
0 5 10 20 30(m)


N
0 5 10 20 30(m)


IN
1층 주출입구


메인 교차로


부부+자녀동 복도


큐레이션 골목 내부


9F GL+21000
8F GL+21000
7F GL+18000
6F GL+15000
5F GL+12000
4F GL+9000
3F GL+6000
2F GL+3000
1F GL±0

우수상

도시결 2.0

명지대학교 | 윤새미, 박예진





INTRODUCTION

오늘날 고밀화된 도시는 과도하게 확장된 건물 스케일로 인해 거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다. 우리는 '고밀'이라는 시대 조건 속에서 도시의 결을 다시 엮어 관계 회복의 실험 구조를 짜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평의 결이다. 이면도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입면에 대한 고찰이다. 10m, 5m 크기의 정방형 매스들이 거리를 향해 튀어나오며, 가로에 리듬을 만들고 경관을 형성한다. 공공의 축과 그에 대응하는 청년의 사적 축을 사이트 맥락에 맞게 설정하고, 그 안에 유기적인 블록을 직조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매스들이 배치된다. 두 번째는 수직의 결이다. 계단참이라는 공용면적을 확장해 하나의 포켓으로 구성하여 수직적으로 소통하는 다층 골목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포켓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나뉘어 각각 팝업 포켓, 일상 포켓, 녹지 포켓으로 작동한다.

세 번째는 청년과 청년을 엮는 결이다. 이 흐름은 단위세대 간 조합을 통해 형성된다. 1단계에서 3단계로 도시의 흐름이 내부로 들어오는 동안, 청년은 3단계에서 1단계의 흐름으로 사회로 나선다. 청년은 집에서 다층 골목 시스템으로 나와 일상을 누리고, 저층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살며시 펼쳐본다. 그 다음 사이트 외곽의 작은 매스로 향하여 그곳에서 혼자 또는 함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다. 도시의 결이 청년에게까지 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계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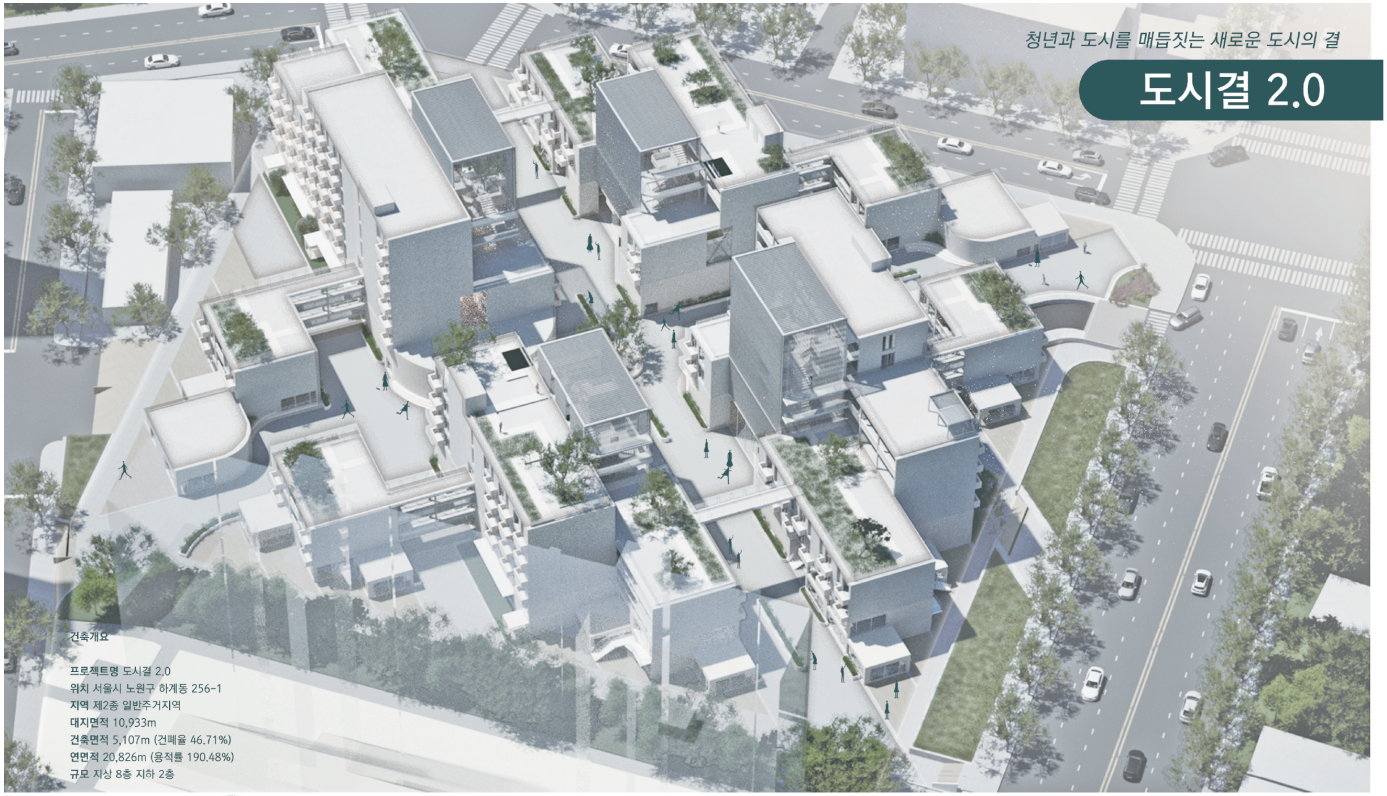












청년과 도시를 매듭짓는 새로운 도시의 결

도시결 2.0

건축개요

프로젝트명 도시결 2.0
위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6-1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0,933m
건축면적 5,107m (건폐율 46.71%)
연면적 20,826m (용적률 190.48%)
규모 지상 8층 지하 2층

청년과 도시를 엮는 공공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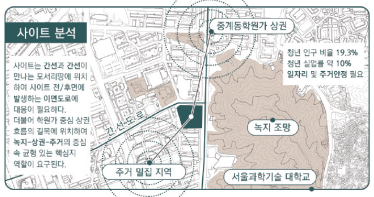
청년과 자연을 엮는 옥상정원



청년과 도시를 엮는 공공의 길



사이트 분석



사이트는 간선과 간선이 만나는 도시리밍에 위치하여 사이트 전/후면에 발생하는 이면도로에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과 중심 상권 흐름의 길목에 위치하여 녹지-상업-주거의 중심 속 균형 있는 핵심지 역할이 요구된다.

프롤로그

도시의 결 0.0
과거

과거의 도시조직은 지형도의 주거들이 골목(어반엘리)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골목은 단순한 동행로가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와 **삶**이 포개지는 생활의 흐름이였다.

도시의 결 1.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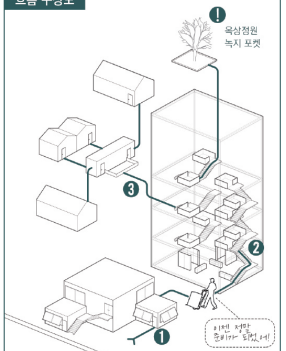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고밀화된** 도시 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건축 스케일과 단절된 매스 구조로 인해 **이면가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골목의 감각과 관계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도시의 결 2.0
미래



이면도로는 단지 '장식'적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결**이 주거단지 내부로부터 시작되어 이면도로로 확장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기존 **골목**을 **고밀 시대**에 걸맞는 **수평 · 수직의 결으로 재해석**하고 주거에 리듬을 부여하고자 한다.
도시결 2.0 프로젝트는 도시 내부와 외부를 엮는 능동적 도시 결의 재구성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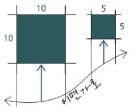
흐름 구상도



* **청년사업 확장의 공간적 프로세스**
❷팝업 포켓에서 사업 가능성을 확신한 청년 〉 ❶**단지 외곽의 정착형 스튜디오**로 확장 〉 사업의 정착

❶ 수평의 결

도시조직과 **어반엘리**를 엮는 첫 번째 전략은, 단지와 가로의 경계를 흐트리는 것이다. **10×10m**와 **5×5m**의 작은 매스를 사이트 외곽에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리듬**있는 입면과 다양한 스케일의 가로 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는 가로의 흐름을 내부로 끌어들인다.



PROGRAM | 청년이 마을에서 펼치는 **실현적** 공간.
이 공간은 사이트의 외곽에 위치한다. 도시에 열려 있는 특성은,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는 **사업 실현의 장**이 된다.



1인 창/작업 스튜디오
오롯이 창업하고, 작업하는 공간.

청년 X 마을
함께 창업하고, 작업하는 공간.

❷ 수직의 결

도시조직은 더이상 한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고밀화 시대에서 청년은 지반층 위로 거주한다. 따라서 **어반엘리**의 흐름을 수직으로 확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전략은, 청년의 일상구조를 엮는 **다층 골목 시스템**이다. 보이드 계단과 그 사이 위치하는 특징적 포켓이 **리듬**을 형성하고 도시 조직을 끌어들인다.

PROGRAM | 청년이 마을로 나가기 위한 **실험적** 공간
이 공간은 사이트의 내부에 위치한다. 청년주거의 중심에 위치한 이 특성은, 청년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쉼을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험의 장**이 된다.

i 상층부 녹지 포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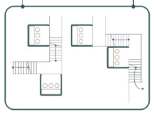
소규모 녹지를 품은 휴게 포켓, 상층부에 위치하여 옥상층과 연결되는 반내/외부적 성격. 도시의 틈을 완충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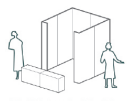
ii 중층부 일상 포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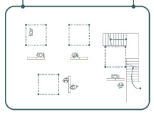
청년의 일상이 모이는 공유의 포켓. 중층부 주거동과 연결되어 편하게 업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주침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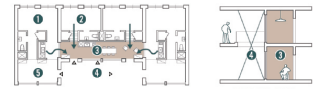
iii 저층부 팝업 포켓



지역 청년 누구나 갑빈 대여로로 자신의 사업을 일시적 구현해 보는 가벼설치형 포켓. "팝업 상점"과 같은 일시적 점유의 공간.



❸ 청년과 청년을 엮는 도시의 결



한 집을 지나 또 한 집,
그리고 그 사이를 통과하던 어반엘리의 감각은 오늘날의 공동주택에서 **복도와 보이드**의 구조로 다시 테어나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어반엘리로 작동하는 **리듬**감 있는 복도 공간. 그리고 그 위에 포개지는 청년의 삶이다.

복도 구성 원리 | 두개의 유닛 ❷이 한개의 ❸공유주방을 쉐이한다. 유닛❶은 선택적 진입이 가능하여 총 네개 세대가 공유공간을 점유한다. ❹오픈 보이드 공간을 통해 위 아래층의 시선적 교류를 이루어진다.

단위세대

자유로운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며, 특정되는 '실'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의 단위세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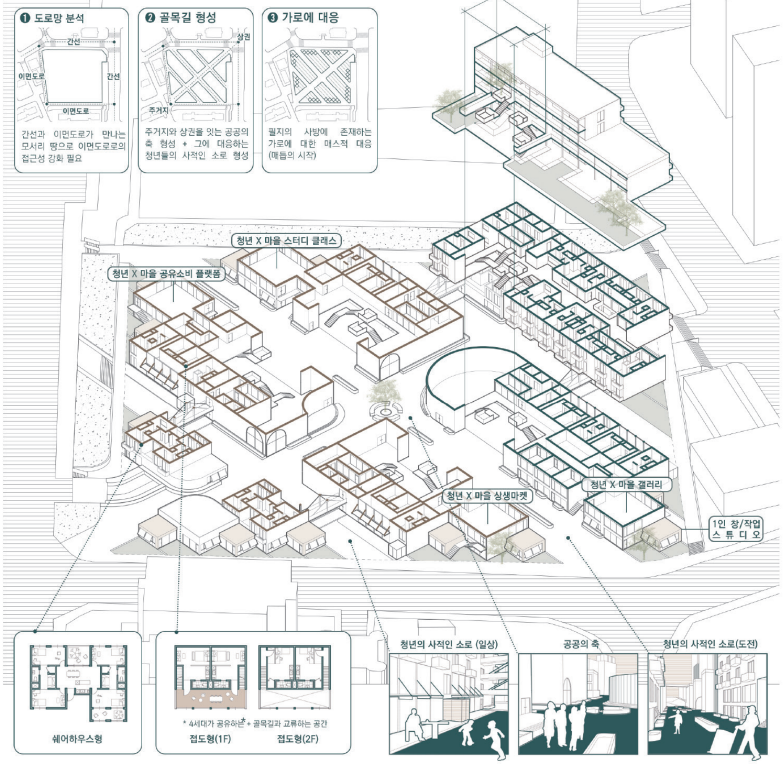


*트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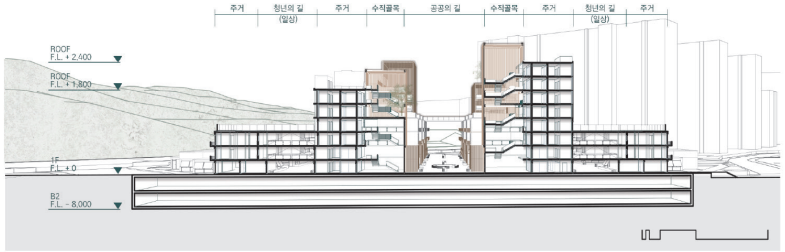
매스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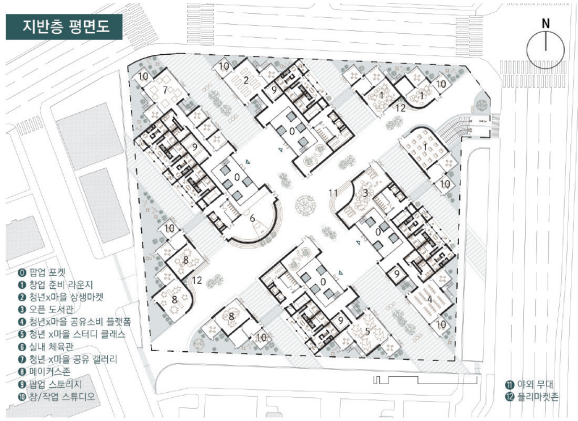
아이소매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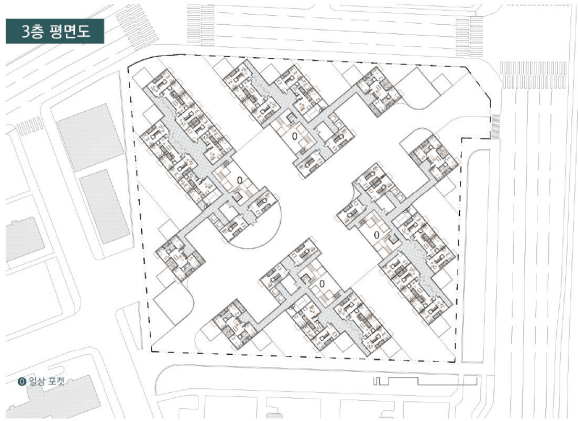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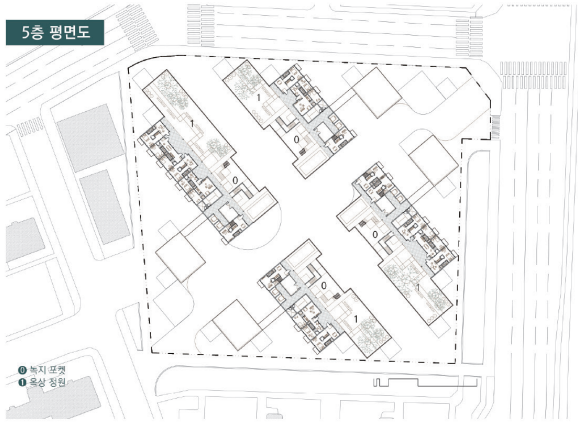
지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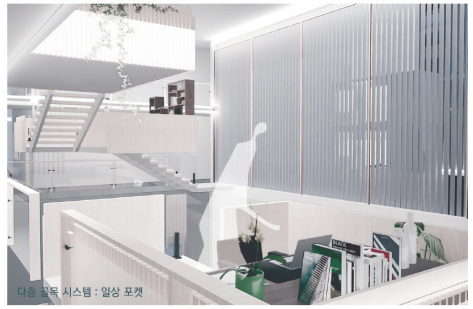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투시도









우수상

collective alley

동의대학교 | 이진원, 단은중





INTRODUCTION

노원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청년층의 독립 주거 수요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그러나 원룸 중심의 주거 형태는 다양한 생활 방식과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청년들은 개성과 리듬을 담아낼 수 있는 '나다운 집'이 필요하다.

우리는 MBTI를 하나의 주거 프리즘으로 해석하였다. 내향성과 외향성, 직관과 감각,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의 네 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생활 성향을 분석하고, 기능·심리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룸 모델을 개발하였다. '탐구형'에게는 복층의 독립 작업실을, '창의형'에게는 상부가 열려 있는 개방형 스튜디오를, '안정형'에게는 공간이 분리된 휴식형 구조를, '체험형'에게는 폴딩도어와 테라스가 결합된 유닛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유닛이 엇갈리며 생긴 틈을 따라 복도와 계단이 연결되고 그 사이에 장비은행, 리페어카페 등 공유프로그램이 삽입된다. 이를 통해 골목은 단순한 circulation을 넘어,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일상의 무대가 되며, 청년의 '관계의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장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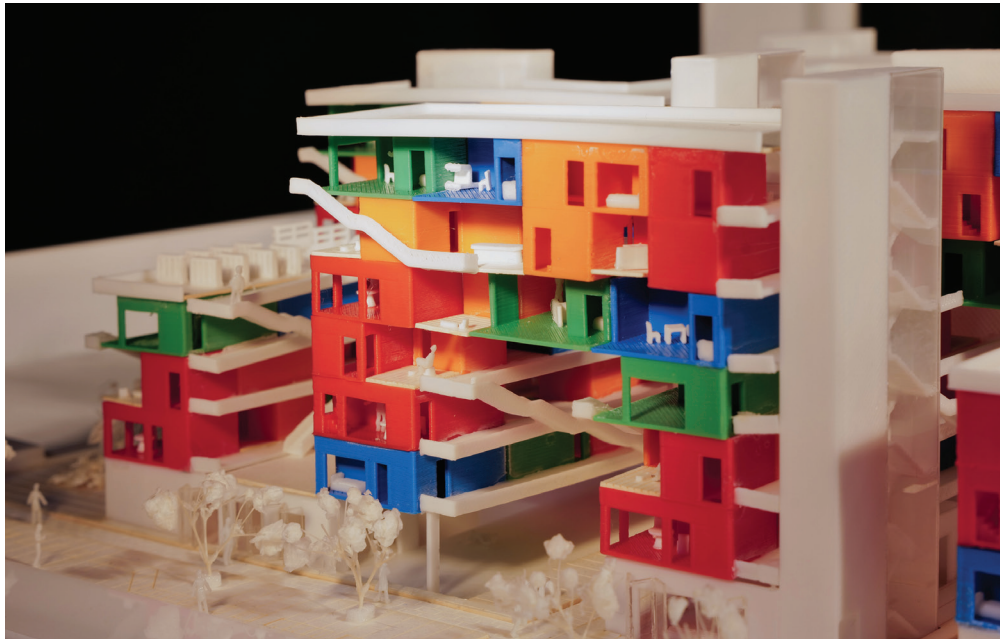
대상지 주변의 자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불암산을 향해 열리도록 설계하였다. 용적률은 130%로 제한하여 과밀화를 피하고, 공유골목을 확보함으로써 청년 주거에 여유와 유연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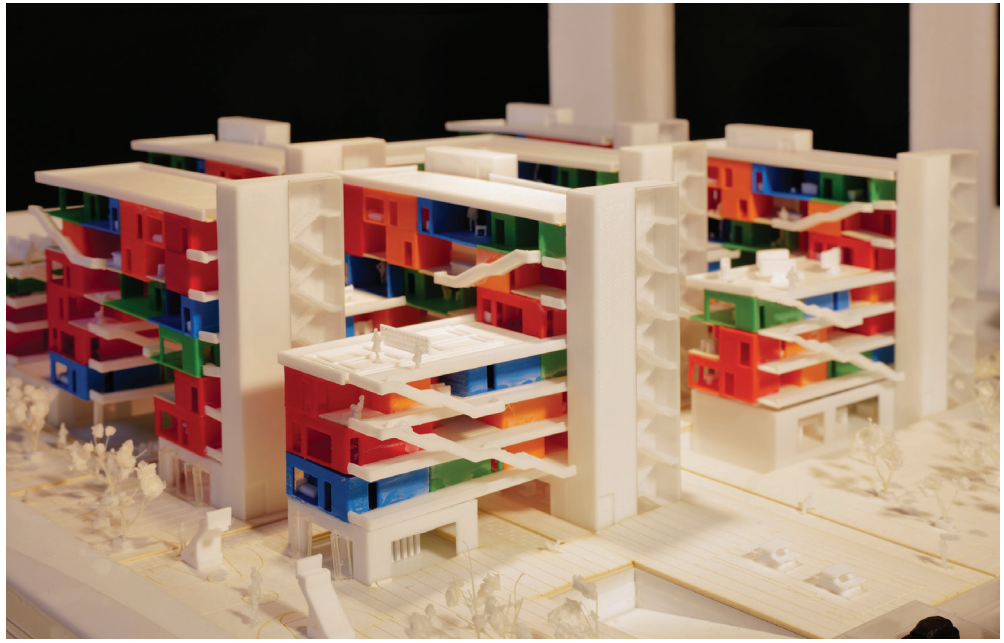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개성을 존중하는 주거'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골목'을 엮어낸 하나의 실험이며,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 도시와 삶을 유연하게 잇는 구조로 바라보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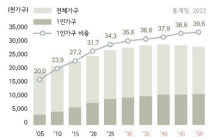








prologue - bed house, bad house



도시 주거 환경에서 원룸은 청년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며,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약 40%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룸은 점차 "잠만 자는 공간(bed house)"으로 전락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요구, 사회적 교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청년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나만의 삶터를 꿈꾼다.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의 시대에 주거는 더 이상 획일적인 설계로 만족시킬 수 없다.

site analysis - grid+alley

인구 구성

노원구는 서울시 내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2022년 기준 약 35%)으로, 청년층의 독립 주거 수요가 크다.

주거 현황

하계동은 1980년대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하계현대아파트, 장미아파트 등)와 저층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다.

교육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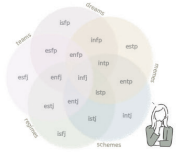
학군지의 교육인프라와 노원문학예술회관 및 중랑천 수변 공원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문화생활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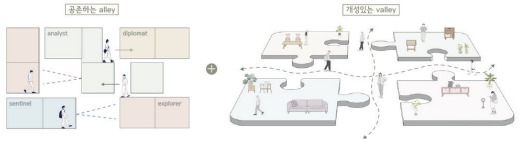
향/조망 | 교통/접도 | 도시축 | 밀도/스카이라인

strategy - custom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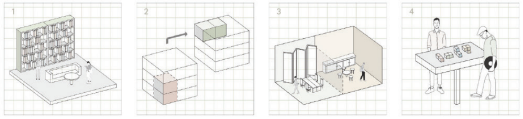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MBTI라는 프리즘을 주거에 대입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심리적·기능적 요구를 충족하는 원룸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외향적인 E형은 개방적이고 소통 중심의 공간을, 내향적인 I형은 사색과 몰입을 위한 아늑한 공간을 원한다. 직관형(N)과 감각형(S), 사고형(T)과 감정형(F), 판단형(J)과 인식형(P)은 각기 다른 공간 활용과 디자인 선호도를 드러낸다. MBTI별 주거모델은 이러한 차이를 정교하게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단순한 집이 아닌 '나를 위한 집'을 선사한다.

concept - personality valley



personality valley는 각기 다른 MBTI에 맞춘 개별화된 유닛과 이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공유공간 골목길을 통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체적 교류를 조화롭게 연결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호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주거 공간 형성을 목표로 한다.

system scenario - alpha space



공유골목의 다양한 장소에 수납이 가능하고 용도에 따라 관리된다.

집 내부의 소유물이 줄어들어 이동이 용이하고 부담이 감소한다.

이웃과 패널을 가변적으로 활용하며 교류하고 확장할 수 있다.

공유골목 관라자가 생활방식이나 활용방식에 대한 요구에 대응한다.



unit design - a home that reflects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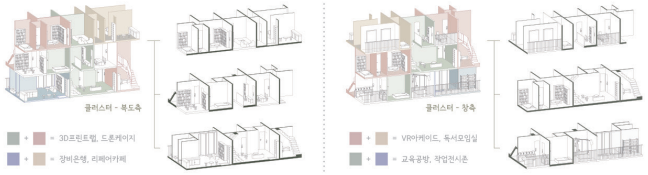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성향을 위해 독립된 복층 작업공간을 가진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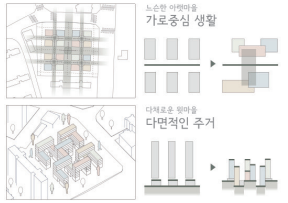
추상적이고 감성적으로 대화하는 성향을 위해 상부오픈된 작업실과 서재를 가진 타입

질서정연하고 사교적인 성향을 위해 각 공간을 분리된 휴식처로 활용하는 타입

즉흥적이고 체험하는 성향을 위해 내벽을 최소화 하고 폴딩도어와 테라스를 가진 타입



design strategy - break the frame



나 - 취미의 골목
'나'다운 집에 살다
개성을 표현하다

너 - 마주침의 골목
공간에 공감하다
취향을 존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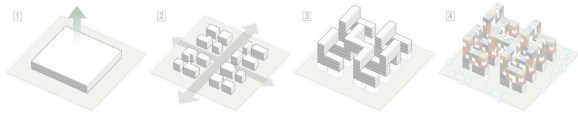
우리 - 도시의 골목
자연과 도시를 잇다
도시 장벽을 허물다

건축계안 1
성향을 반영한 구조와 여백을 통해 공유골목을 만든다.

건축계안 2
공유골목을 복도와 계단으로 연결하여 확장한다.

건축계안 3
그물망 구조의 마을과 결합된 중저층 주거를 배치한다.

mass process - vertical alley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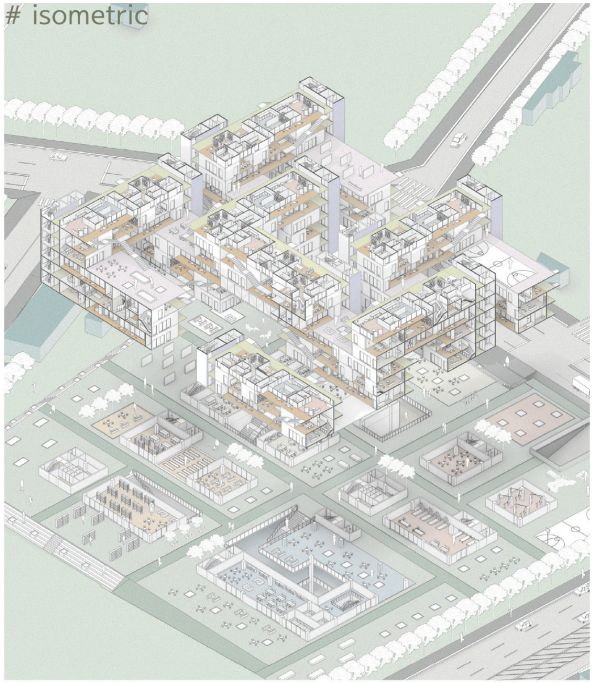
대상지 현황과 조건에 따른 매스를 형성한다. 접근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게이티드 커뮤를 방어하기 위해 기존 가로를 연장하며 매스가 분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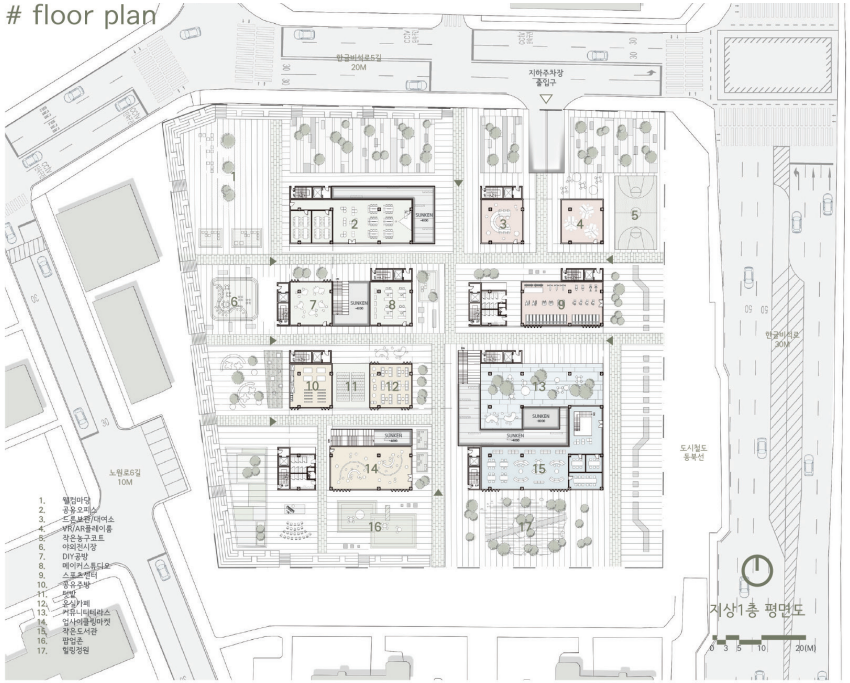
불암산을 끌어들이는 하부 주거와 서로를 연결하는 상부 주거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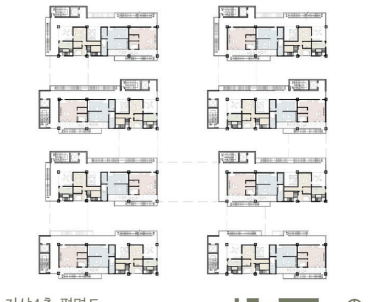
유닛이 엇갈리며 만들어내는 void공간을 공유하는 골목길로 활용한다.

isometric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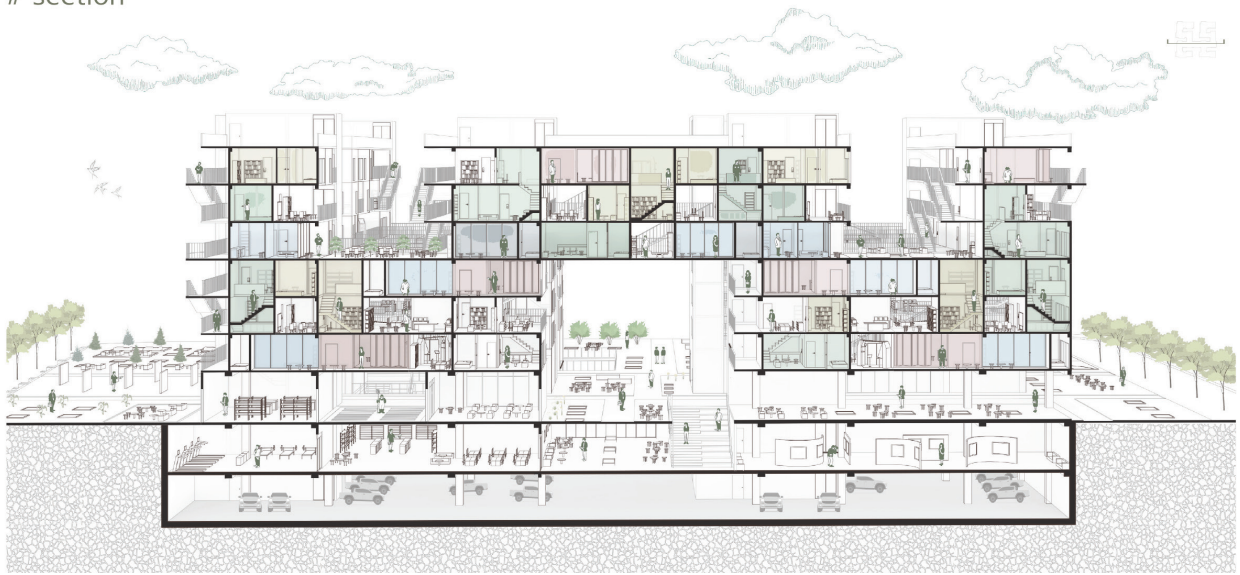








section



장려상

Entrop-ing

세종대학교 | 우재현, 이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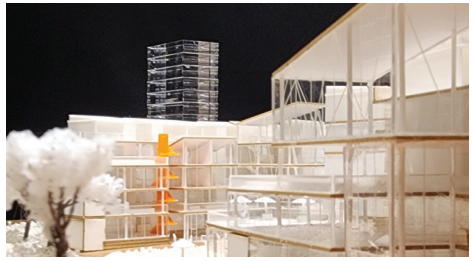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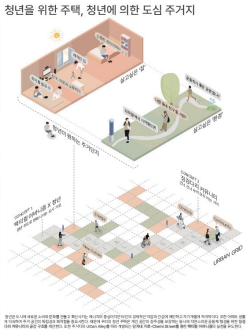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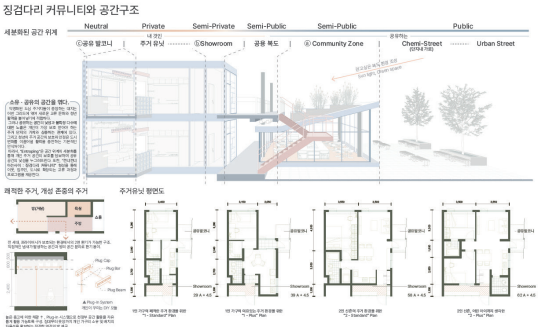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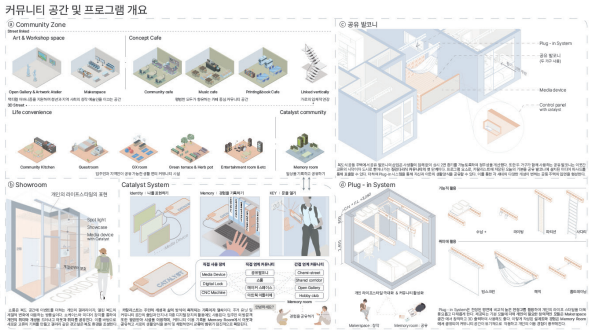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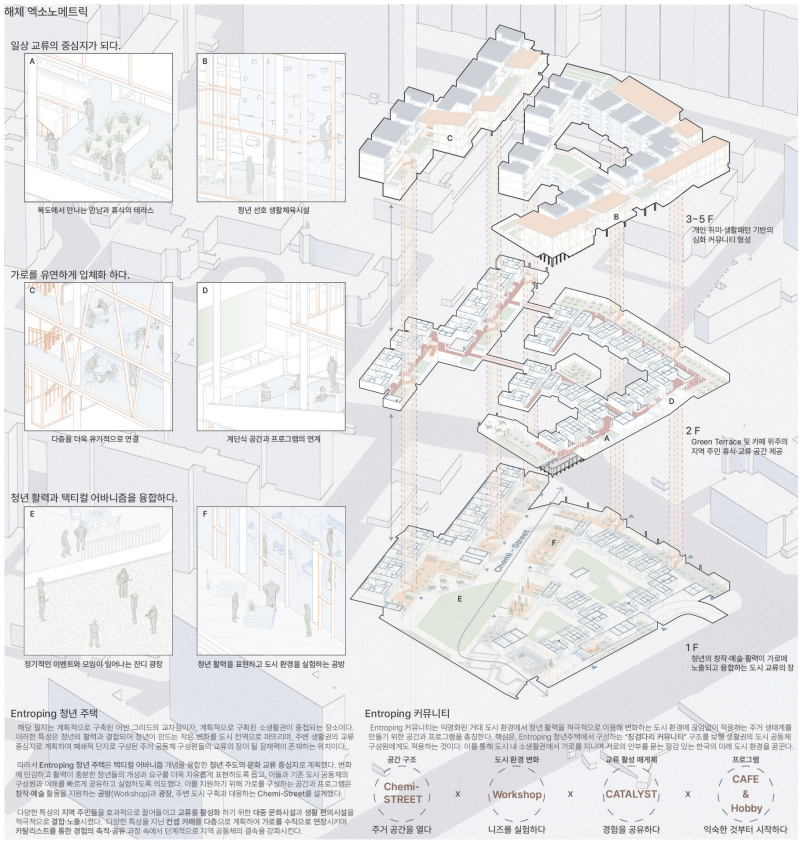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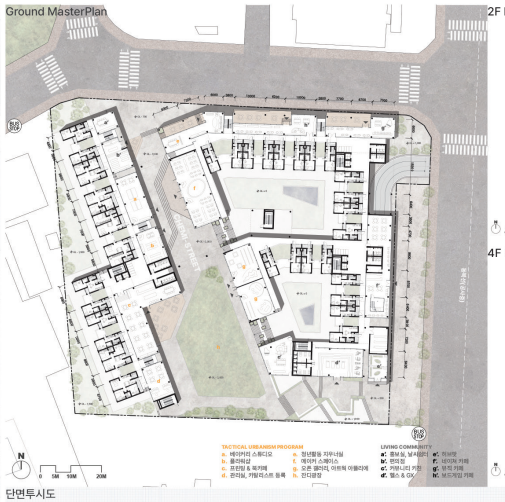


INTRODUCTION

아파트의 폐쇄성과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가로는 교류 기능이 배제된 이동 중심의 공간이 되었고, 이웃 간 교류 단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단절된 사회에서 “Entrop-ing”은 청년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오래 거주하고 싶은 청년주거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은 도시적 교류의 확장과 발전 기반을 제공하는 씨앗이 되고, 청년의 생동감을 통해 도시환경의 변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생활 편의성이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하고 도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거단지 실현을 위해 단지의 공간적 위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공간은 서로 중첩·교류하며 취미와 개성을 드러내며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이웃과의 만남을 유도한다. 또한 ‘Catalyst’라는 교류 장치를 통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한다.

어반 그리드와 연결되는 단지 내 가로 Chemi-Street는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거동의 연도형 배치를 통해 가로 환경과 연속적인 소통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공동체와 교류하며 모두의 이해를 실험하는 가로 환경이 조성되며 높은 호응을 얻는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들은 점차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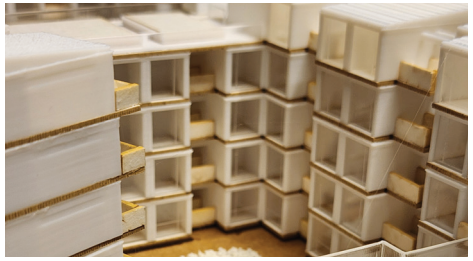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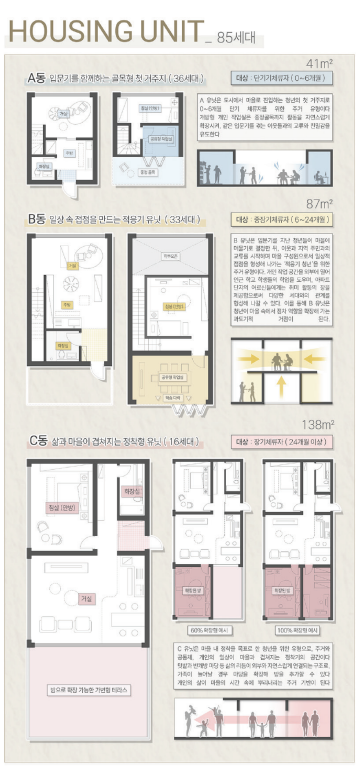
살며시, 슬며시

대전대학교 | 임수연, 이채빈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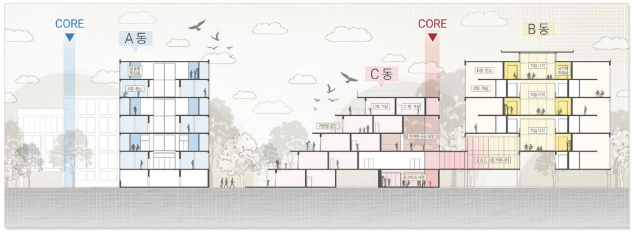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도시로 유입된 청년을 '이방인'으로 정의하고, 마을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로 스며드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해석한 프로젝트이다. 크게 A동(0~6개월 거주 입문기), B동(6~24개월 거주 적응기), 그리고 24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C동(정착기)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각 동의 위치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이트 외곽에서 도심 부분으로 이동하며, 시기별 공간 구성과 커뮤니티 경험의 밀도, 외부와의 관계성에 차이를 두었다. A동(입문기)는 입주 초기의 청년들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동 내부에서 마주침과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외부와는 조금 분리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밀도 높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B동(적응기)는 인근 학생과 청년을 위한 '학습다락'과 마을 노인과 청년들의 취미 공용공간인 '여가다락'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마을에 점차 동화되며 정주 여부를 결정하는 공간이다. C동(정착기)는 마을과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청년들이 정주를 결정한 단계로, 외부 주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반개방형 마당 공간이 주요 커뮤니티 거점이 된다. '살며시, 슬며시'는 청년이 마을에 동화되고, 관계를 넓혀가는 과정을 담아내며,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주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FLOOR PLAN 1 /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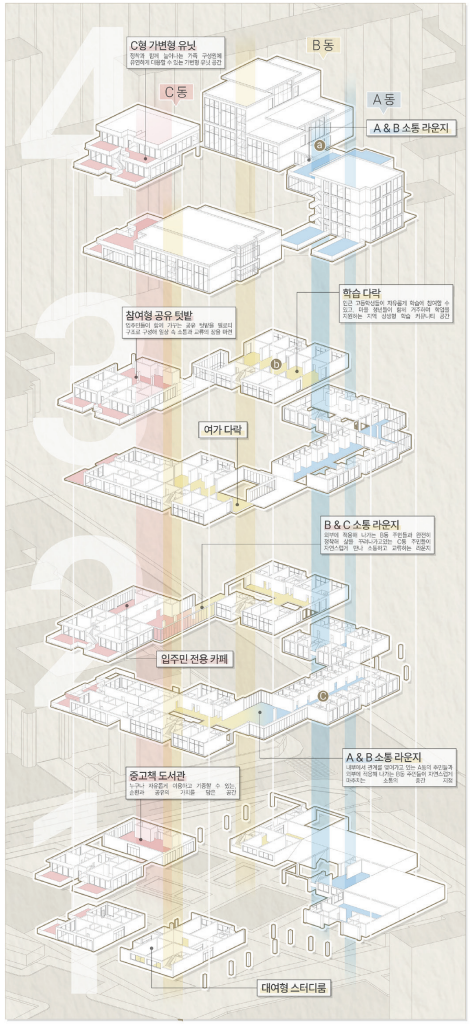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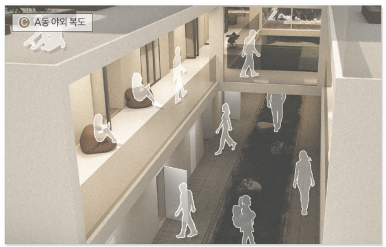
ISOMER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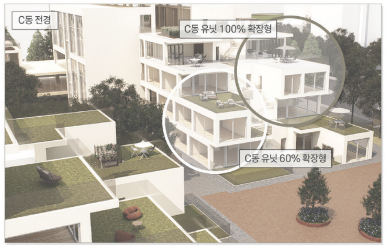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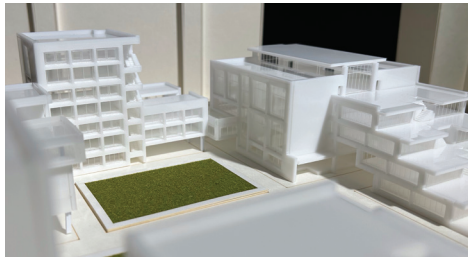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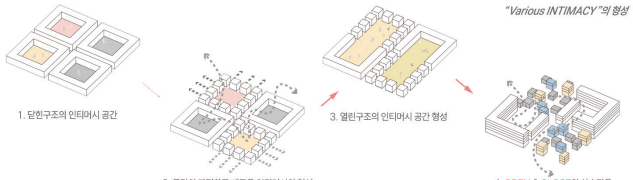
OUR INTIMACI(Y):TY

명지대학교 | 신중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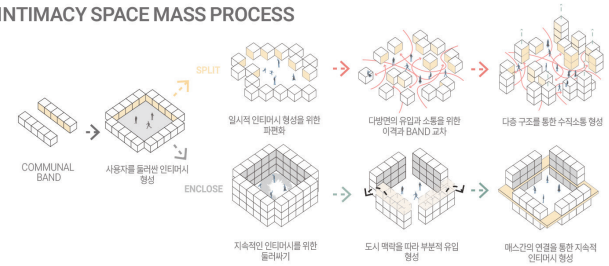


INTIMACY URBAN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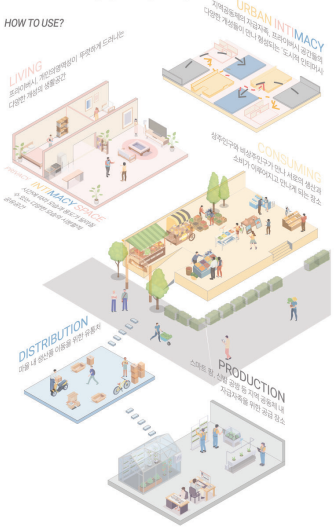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간의 인티머시가 형성되는 환경은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조성되었을 때 이상적일 수 없다. 기존의 둘러싸기 방식으로 형성된 닫힌 구조의 인티머시 공간들은 공간과 공간의 인티머시 형성에 있어 제한적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공간의 파편화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연결하여 열린구조를 형성, 열림과 닫힘의 반복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다방면 소통 기회를, 다양한 인티머시 형성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INTIMACY SPACE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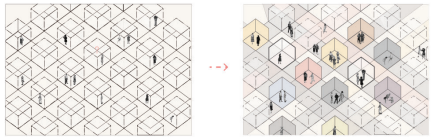
INTIMATE USER SPACE



WHAT IS INTIM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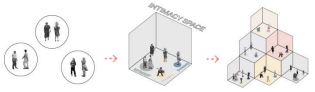
#1 Ih2434

인티머시란 사람과 사람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이다 이는 **자기개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감정적 교류**이다. 인티머시는 개인의 건강에 유익하며 삶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티머시의 형성 요건 중에는 비언어적인 요건 중 물리적 요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시적인 인티머시는 **환경의 조절**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을 이상적으로 제안해주어야 한다. 하나 현재의 도시는 **Merger**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근접성, 상호성을 위한 기본적인 공유공간은 형성되어 있으나 고정된 용도를 바탕으로 개인적 자율성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가 일상을 행하는 공간이 **Intimate**한 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인티머시란 사람과 사람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이다 이는 **자기개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감정적 교류**이다. 인티머시는 개인의 건강에 유익하며 삶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티머시의 형성 요건 중에는 비언어적인 요건 중 물리적 요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시적인 인티머시는 **환경의 조절**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을 이상적으로 제안해주어야 한다. 하나 현재의 도시는 **Merger**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근접성, 상호성을 위한 기본적인 공유공간은 형성되어 있으나 고정된 용도를 바탕으로 개인적 자율성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우리가 일상을 행하는 공간이 **Intimate**한 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INTIM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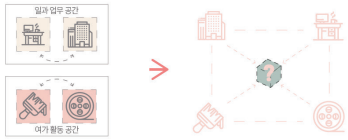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생성된 개인의 영역성(프라이버시)이 타인과의 장입없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 더 성숙한 단계인 인티머시를 형성하게 된다.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심리학적인 인티머시의 개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이 하나의 공동주거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유지할 지, 즉 자신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문제로도 인티머시는 건축 공간과 연관될 수 있다.

SITE ANALYSIS



주변 일대가 다수의 계획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사이트 특성상 상대적으로 정돈된 십자형태의 그리드 맥락을 띠를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곧 들어설 동북선 경로상에 위치하며 근린공원과의 지리적 연계성으로 동·서로는 녹지와의 연결 관문, 남·북으로는 새로운 교통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FOR INTIMATE LIFE, USE SPACE INTIMA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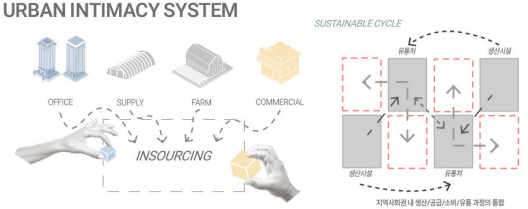


자신의 일과 여가 활동이 분리되어 있으며 고정된 공간 용도로 분리된 생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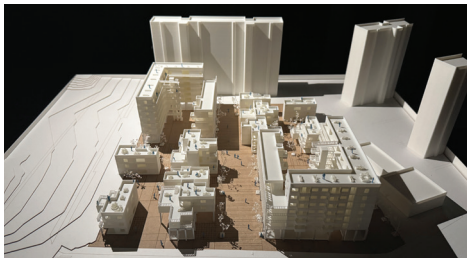
일과 여가 활동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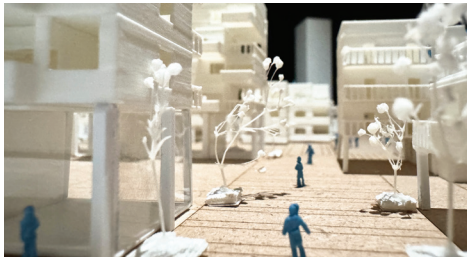
현대 도시민들의 집에서 직장으로의 획일적 여정 속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행태는 이상적인 인티머시 형성에 있어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정된 용도가 아닌, 일과 여가의 구분을 허물고 본인이 원하는 용도로 공간 점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다양한 인티머시가 형성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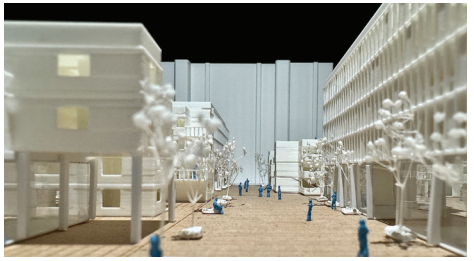
URBAN INTIMACY SYSTEM



INTIMACY는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간의 관계 형성만이 아닌 시스템적 양상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기존의 파편화되어 일방향적인 생산-공급-소비 구조인 Outsourcing 의 구조를 하나로 모아 자급자족할 수 있는 Insourcing 구조로 변환한다. OPEN & CLOSE의 관계는 생산-공급-소비-유통의 관계로도 나날 수 있게 되며 공간과 공간간의 관계가 형성되며, 상주인구들이 경제적, 사회적 소통을 하게 되어 지속적이고 사회적인 인티머시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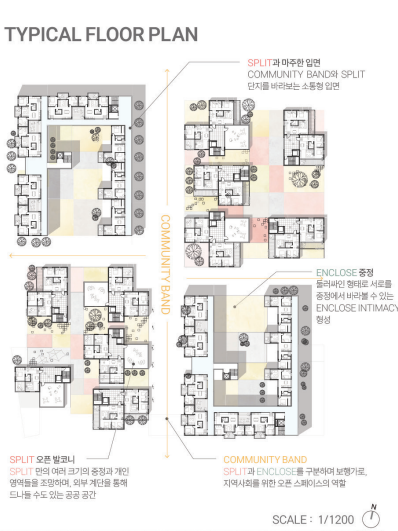


INTRODUCTION

'인티머시'란 사람 간의 사적, 개인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이며, 자기개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 교류이다. 인티머시는 다양한 형성 요건 중에서도 물리적 요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일시적인 인티머시는 환경의 조절을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현대 도시에서 'intimate'한 환경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개성을 가진 거주자들이 하나의 공동 주거 안에서 자신의 영역성(프라이버시)을 확보하면서 타인과 관계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티머시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건축 공간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 형상과도 연관될 수 있다.

기존의 일방향적인 '생산-공급-소비' 구조인 'OUTSOURCING' 구조를 하나로 모아 자급자족할 수 있는 'INSOURCING' 구조로 변환한다. OPEN & CLOSE의 관계는 '생산-공급-소비-유통'의 관계로도 나뉠 수 있게 되며, 상주인구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통하여 지속적이고 사회적인 인티머시가 형성된다. 기존의 닫힌 구조를 벗어나, 공간의 파편화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연결부에 열린 구조를 형성, 열림과 닫힘의 반복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소통과 다양한 인티머시 형성의 기회를 마련한다. 해당 공간 구조는 SPLIT과 ENCLOSE의 형태로 유형화되어 시스템적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사이트의 맥락에 맞게 배치한다. 각 SPLIT과 ENCLOSE 공간 구조는 클러스터의 연결성과 단지의 특성이 주거 모듈에 녹아있게끔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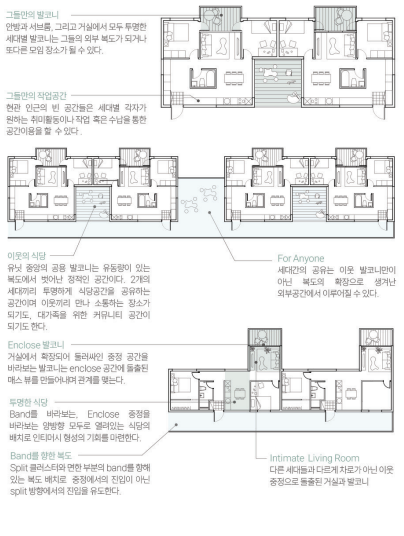






OUR INTIMACI(Y) :TY

도시에서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식은 두가지 공간 구조간의 대조로부터 일어날 수 있으며, 대조된 두 요소간의 공간적 시스템적 연결성을 확보함으로서 파편화된 도시구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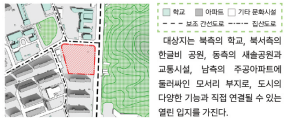
갈피를 꽂다

한양대학교 | 변준성, 오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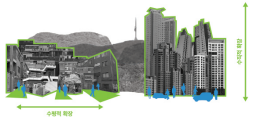


SITE ANALYSIS



대상지는 북측의 학교, 북서측의 한글비 공원, 동측의 새솔공원과 교통시설, 남측의 주공아파트에 둘러싸인 모서리 부지로,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열린 입지를 가진다.

PROLOGUE : 현 도시의 보행 친화성 상실의 원인



1980~90년대 한국 주택가의 정겨운 골목 풍경은, 산업 고도화와 부동산 경쟁, 재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점차 사라졌다. 수평적 확장이 주를 이루던 과거에는 골목마다 주민들의 삶이 자연스레 스며들었지만, 토지 부족과 인구 수용 압박으로 고층 아파트가 선호되면서 도시 공간은 점점 수직적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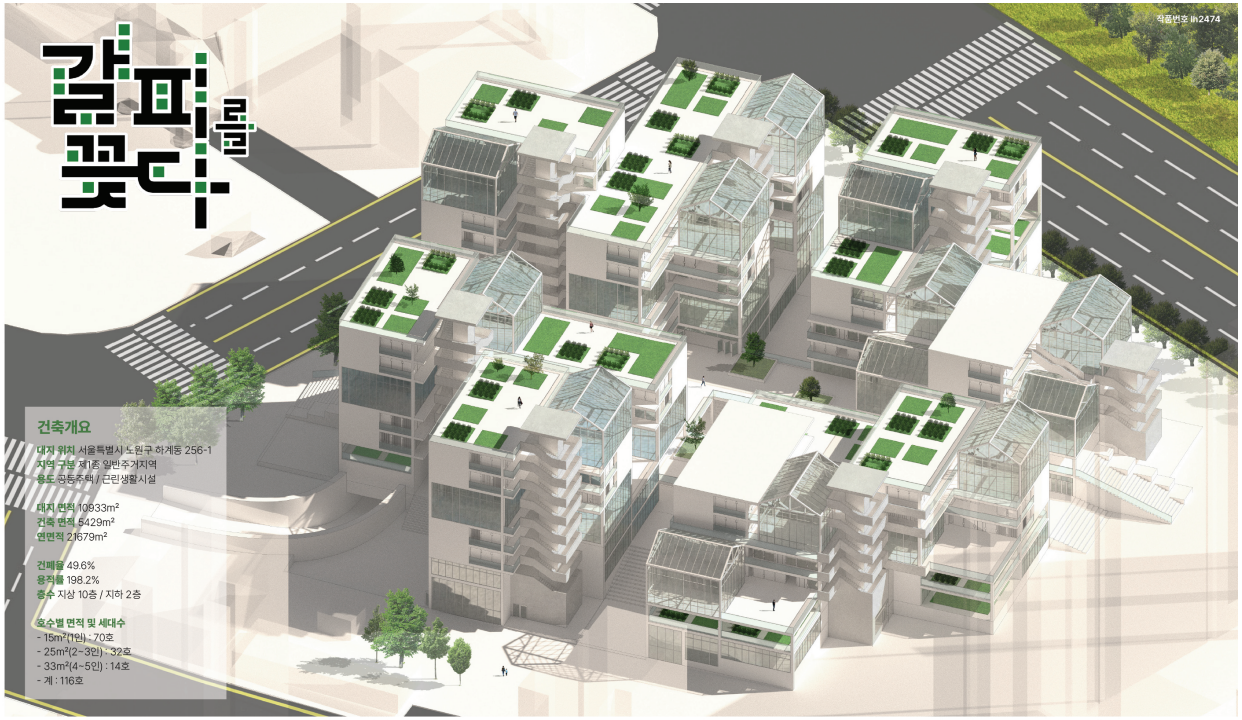
동시에 대량생산을 통한 주거 모듈의 획일화와 전용 면적 확보의 논리에 따라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공간은 축소되었고, 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은 채 단순한 통로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공용 공간은 '우리들의 공간'이 아닌 공공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배타적 태도는 아이의 가로 공간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수직적 도시 구조는 차량 중심의 동선 체계를 강화했고, 사람은 가로에서 차량에 밀려나며, 도시는 점점 보행 친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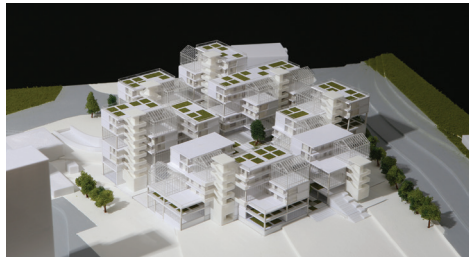
SOLUTION : 가로와 주거를 잇는 '갈피' 공간



이에 따라, 가로 → 공용 커뮤니티 공간 → 수직 동선 → 개인 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곳곳에 일종의 현대식 골목으로써 '갈피 공간'을 제안한다.

'갈피 공간'은 복도 및 커뮤니티 공간과 접한 가로 공간을 '우리들의 공간'으로 회복시키고, 공용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년들 혹은 지역 거주민들에게 '삶의 갈피'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주거 모듈 TYPE



1인 주거×3 유형

혼자서 자립한 생활을 시작한 1인 가구.
각자 생활 리듬과 성향이 다르며,
고독과 연결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함.



2~3인 주거×2 유형

신혼부부 / 친구 혹은 자취생들 간의
공동생활자 유형으로, 일정 부분 가족 단위
또는 관계 기반의 공동 생활을 하는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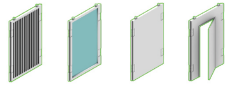


4~5인 주거×1 유형

창작자 공동체 (밴드, 예술가 그룹 등)
목적 중심의 집단 거주. 공동 작업과 생활이
긴밀하게 얽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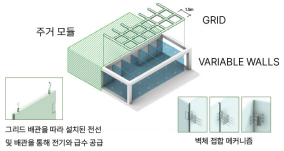
- 각 주거 모듈에는 4.5m×9m 크기의 공용 가변 공간이 하나의 '갈피 공간' 으로써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이 공간은 거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취향에 따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유연하게 구성된다.

가변형 슬라이딩 벽면 TYPE (규격 : 1.5m × 2.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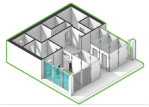


가변형 벽면 배치를 위한 그리드 모듈 구성

벽면은 천장에 매입된 1.5m×1.5m 단위의 격자 그리드 레일을 따라 배치되며, 필요에 따라 분리 후 이동 가능하다.



예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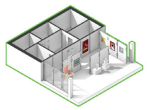
SCENARIO 1.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1인 거주자들이 입주한 모듈로, 세 개의 소규모 개인 작업실과 하나의 공동 작업실이 구성되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창작 중심의 공간이다.



SCENARIO 2.

두 가족 단위의 거주자가 함께 모여 사는 구성으로, 자녀를 위한 놀이방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공용 주방을 마련해 일상과 양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 환경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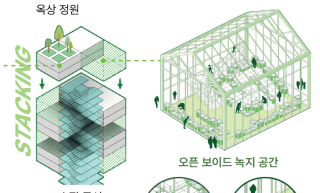


SCENARI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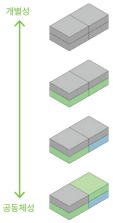
예술 활동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위한 모듈로, 공용 공간 전체를 하나의 유연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작업과 전시, 관람이 순환하는 창작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주거 클러스터 및 오픈 보이드 녹지 공간 구성

하나의 주거 클러스터는 4개의 주거 모듈로 구성되며, 각 클러스터에는 하나의 오픈 보이드형 녹지가 배치된다. 이 녹지 공간은 실내의 개인 또는 공유 공간보다 확장된 활동 영역을 제공하며, 자연과의 일정한 연결을 통해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주거 클러스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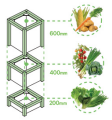


TYPE 1. 개인 주거 집중형 클러스터 (×9)
모든 모듈이 1인×3 모듈로 구성된 구조로, 독립적인 1인 주거자들이 함께 모여 형성한 클러스터.

TYPE 2. 균형형 클러스터 (×6)
1인과 2~3인 모듈이 각각 2개씩 혼합된 구조로, 1인 가구와 소형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섞임.

TYPE 3. 혼성 목적형 클러스터 (×8)
1인, 소규모 공동체, 예술가 집단 등 다양한 거주 유형이 공존하는 구성.

TYPE 3. 집단 중심형 클러스터 (×6)
비교적 규모 있는 공동 생활이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 집단 거주 및 창작 커뮤니티 중심의 집약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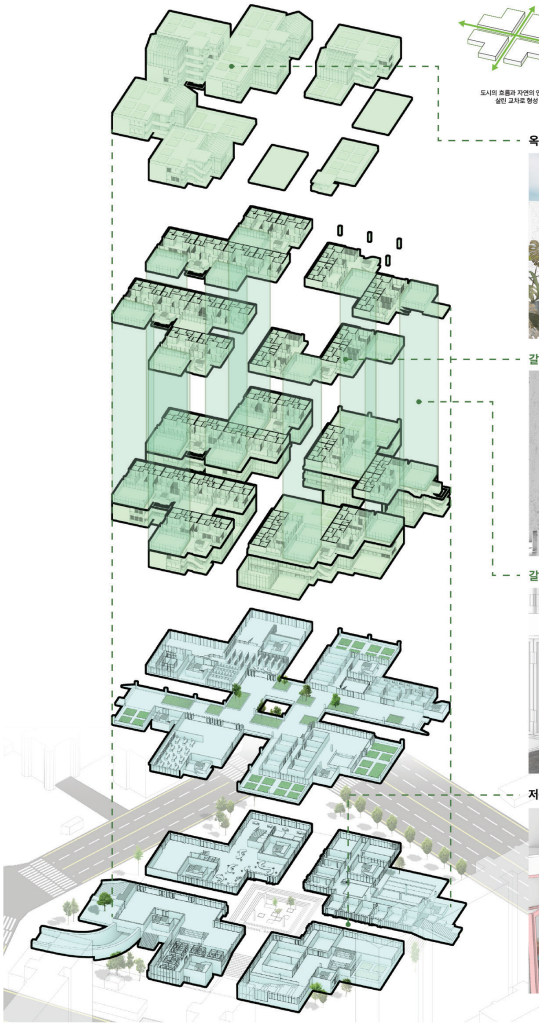
오픈 보이드 녹지 공간은 다양한 규격의 플랜트박스를 활용한 공유 텃밭으로 조성된다. 거주민들은 이곳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저층부 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이웃들과 나누며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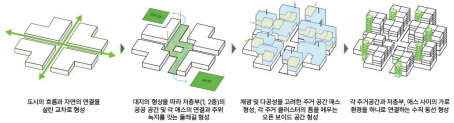
'갈피를 꽂다'는 도시에서 삶의 방향을 잃기 쉬운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동체와 공존하며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갈피"를 찾아갈 수 있는 주거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면도로와 맞닿은 저층부(1~2층)에는 주변 도시 흐름(context)에 따라 공원을 잇는 둘레길, 단지 내 중앙 이면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중정심터를 계획하였다. 인근 아파트 방면으로는 청년 텃밭과 바자회 마켓, 공유주방 등을 구성하고. 학교 방면에는 도서관, 그룹스터디, 카페 등을 배치하여 학생들과 청년들을 연결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주거 유형은 사회 초년생 3명이 모인 주거모듈, 2~3인 신혼부부 또는 소규모 공동생활자가 2가구씩 모인 주거모듈, 예술 및 단체 활동을 하는 4~5인 청년 공동체 모듈로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거모듈은 중앙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사적공간이 연결되며, 유리, 루버, 솔리드벽 등 다양한 슬라이딩 벽체를 활용해 거주자들이 가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유형에 따라 4개의 모듈을 묶어 주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각 개인 공간에서 복도를 따라 텃밭 공간, 수직 동선(계단, 엘리베이터)으로 확장되는 동선을 계획하였다. 각 클러스터마다 위치한 오픈 보이드 공간은 200mm, 400mm, 600mm 높이의 플랜트 박스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크기의 입체 공간을 형성하는 텃밭이다. 이 공간은 개인과 공동의 경험을 동시에 담는 조경 시스템이자, 도심과 자연을 잇는 '갈피' 공간이다. 외부인은 둘레길을 따라 건물 내부를 유입되어 청년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며 도시 속 공공성을 확장하는 하나의 '갈피' 역할을 한다.

작품번호 lh2474

ISOMETRIC VIEW



MASS PROCESS



도시의 흐름과 자연의 연결을 살린 고치로 형성

대지의 형상을 따라 저층부(1, 2층)의 공공 공간 및 각 매스의 연결과 주위 녹지를 잇는 둘레길 형성

채광 및 다공성을 고려한 주거 공간 매스 형성, 각 주거 클러스터의 통풍 제우는 오픈 보이드 공간 형성

각 주거공간과 저층부, 매스 사이의 거로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수직 동선 형성

옥상 정원



갈피 공간 1. 가변형 그리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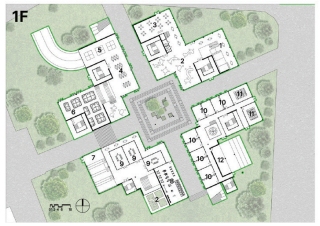
갈피 공간 2. 오픈 보이드 녹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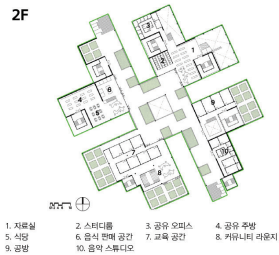
저층부 커뮤니티 공간 (공방 & 전시 공간)



평면도









단면도







장려상

하계동 멘토링 하우스

아주대학교 | 이승현, 하용식






하계동 멘토링 하우스
이주 청년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멘토-멘티 플랫폼
<건축개요>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256㎡
대지 면적: 10,933㎡
건축 면적: 4,083㎡
연면적: 20,793.6㎡
건폐율: 37.36%
용적률: 190.16%
규모: 지하1층, 지상 9층
세대수: 154세대
용도별 면적: 주거 공간 12,495㎡ (60.0%)
공용 공간 4,664㎡ (22.4%)
커뮤 니티 1,211㎡ (7.8%)
멘토링 사실 2,007㎡ (9.6%)

이주 청년과 하계동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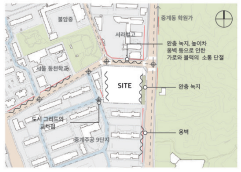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기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새로운 동네에 이주한 청년들은 낯선 지역에 적응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주 청년들이 지역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들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 청년들과 지역 주민과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주 청년 - 지역 주민 사이의 멘토 - 멘티 생활 플랫폼을 제공하는 청년주택을 제안한다.**



하계동의 멘토와 멘티

사이트가 위치한 노원구 하계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에서 50대가 가장 많다. **육아와 가사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을 육아 멘토 역할로, 경험이 부족한 이주 청년을 멘티 역할로 설정하여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육아 및 주부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사이트 북쪽으로는 서라벌 고등학교와 중계동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다. **공부와 진로 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멘티 역할로, 경험이 많은 선배인 이주 청년을 멘토 역할로 설정한다.** 학생 멘토 프로그램을 두어 이주 청년과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소통이 어려운 도시의 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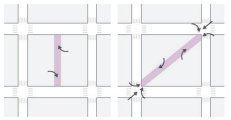


사이트 주변에는 지형으로 인한 옹벽과 높이 차 그리고 완충녹지로 인해 **도시의 그리드와 블록 사이의 단절**이 생기고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결국 도시 그리드의 보행 공간은 단순한 이동 통로에 머무른다. 아파트 단지의 이면도로 또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도시 **그리드의 교차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활 가로를** 조성하여 블록과 가로 사이의 단절을 해소한다. 가로 공간을 중심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도시 그리드의 교차점을 잇는 생활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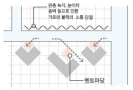



< 그리드와 나란한 가로 >
< 교차점을 연결하는 가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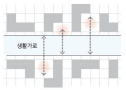
도시 그리드의 교차점은 주변 블록 이용자의 이동 동선이 중첩되는 잠재력이 큰 장소이다. 이에 블록 내부의 생활 가로를 그리드와 나란한 방향으로 배치하는 대신, 그리드의 교차점을 직접 연결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이때 생활 가로가 접할 수 있는 블록의 수가 늘어나며, **더 많은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잠재력 높은 생활 가로를 형성한다.**

가로에 대응하는 멘토 마당

분석을 통해 계획한 생활 가로와 도시 그리드에 이주 청년과 지역 주민의 **멘토-멘티 마당**을 계획한다. 가로의 환경에 따라 마당의 형태와 건물의 배치를 다르게 접근하였다. 좁은 인도와 옹벽, 차도로 단절된 도시 그리드에서는 회전된 매스를 배치하였다. **도시 그리드를 향해 열린 마당을 형성하고, 건물을 따라 내부로 동선이 이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생활 가로에는 매스를 나란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깊이의 마당에 머물며 교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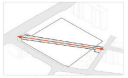


< 도시그리드에 회전한 사선 매스 배치 >



< 생활가로와 나란한 매스 배치>

멘토 클러스터 형성 프로세스


< 1. 도시 그리드와 생활가로 연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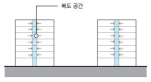

< 2. 멘토마당 형성 >


< 3. 가로를 향해 저층 배치 및 높이 조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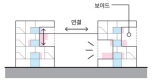

< 4. 멘토링 공간 관입 >

공용공간의 입체적 연결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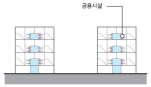
생활가로와 도시의 그리드에 멘토 마당을 통해 형성한 공공성은 주호 앞 복도 공간까지 확장하여 청년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주 청년들 사이의 소통 공간 또한 다양하게 구성했다.



< 1. 일반적 복도 구성 >



< 3. 보이드 및 브릿지 형성 >



< 2. 복층 복도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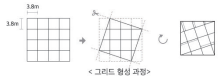
< 4. 공용공간 연결 >

층마다 있던 복도 공간을 2개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합하고, 복층 주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복도 층에서 더 많은 주호가 연결되며, 동시에 더 넓은 복도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넓어진 공용공간에는 주민 소통 공간과 보드게임 룸, 중고 도서 공유 공간, 공동 창고, 시네마 룸 등 입주민의 취향에 맞춰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주거 공간은 복도층과 주호층으로 구분되며 반(半) 사적인 생활 공간과 사적인 생활 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했다.

복도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보이드와 각 주동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두어 각 층과 각 주동의 다양한 공용시설들에 쉽게 접근하도록 계획했다. 보이드 공간은 마당을 향해 열리며, 각 마당의 멘토 프로그램과 연계된 스터디 라운지, 어린이 공부방 등으로 구성했다. **보이드를 통해 마당으로, 다시 마당에서 도시 그리드와 생활가로까지 연결되는 공공성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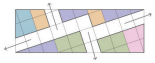
그리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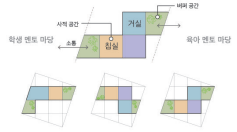
3.8m×3.8m 모듈을 집합한 뒤 모서리를 자르고 회전하여 새로운 그리드 시스템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일정한 유닛의 반복되는 공간에서 벗어나 매스 내부의 다양한 깊이를 가진 그리드 안에서 풍부한 공간을 형성한다.** 이 그리드를 바탕으로 여러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를 담아내고 정형화된 복도 공간에서 벗어나고 자연스럽게 외부로 열린 복도 공간을 구성했다.



< 그리드 형성 과정>


< 다양한 주호 형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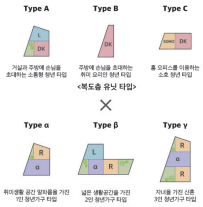

< 외부로 열리는 복도공간>



다양한 깊이의 그리드를 활용해 모든 주호의 거실과 침실에서 마당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마당은 **주동 입면과 외부 마당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버퍼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한 그리드 안에서 실을 기준으로 각 유닛 타입을 구성하여 **같은 유닛 타입에서도 다양한 평면과 마당공간 구성**을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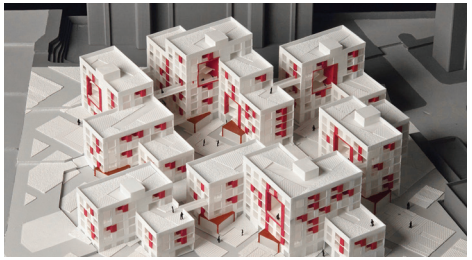
BESPOKE 주거유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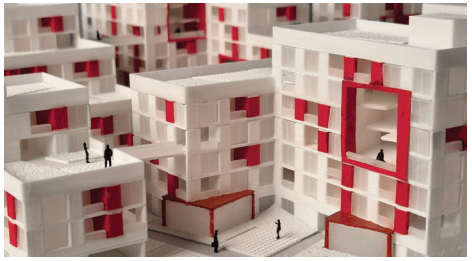
복층의 주거 유닛은 복도층과 주거층 두 유닛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복도층은 반(半)사적인 생활공간으로 손님에게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층은 사적인 생활공간으로 청년의 가족 구성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구성하였다. **각 층의 유닛을 조합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가족 유형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유닛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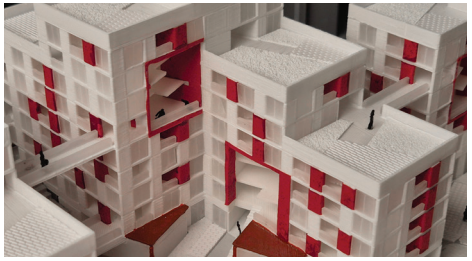


주거유닛은 단순히 면적에 따라 계획하지 않고, 그리드를 기반으로 복도층 유닛과 주거층 유닛의 실 구성과 공용공간을 기준으로 계획하였다. **복도층 유닛은 복도가 외부로 열리고 깊이도록 이웃과의 연결과 공유공간의 배치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주거층 유닛은 모든 주호의 사적공간인 거실과 침실에 마당을 가지면서 양방향 통풍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계획하고 이를 연결하는 알파룸을 두었다. 이를 통해 주거를 **단순한 면적기준이 아닌 다양한 생활수요를 수용하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복층 주호로 계획하였다.**


< 주거층 유닛 상세 >
Type A+α 62.4㎡
Type C+β 54.4㎡
Type B+α 48.0㎡
Type C+α 50.4㎡
Type A+γ 84.0㎡
Type B+γ 60.0㎡
복도층을 연결하는 수직 공용공간
어린이 공부방 등 마당에서부터 수직으로 확장되는 공용공간
모든 주호가 가진 개별 마당공간
3가지 타입의 사적인 마당을 침실 앞에 구성
Type A+γ 76.8㎡
< 복도층 유닛 상세 >
Type A+α 62.4㎡
Type B+β 72.0㎡
연속적인 복도를 만들어주는 연결 브릿지
Type B+α 45.6㎡
복도 공간을 따라 마련된 다양한 주민 소통공간
마당을 바라보도록 열린 공유 거실
Type B+β 62.4㎡
Type A+γ 60.0㎡
Type B+γ 60.0㎡
이웃 주호의 공유공간
보드게임 룸, 시네마 룸, 공용 창고, 공유 주방 등 공유하는 세대에 따라 다양한 공용 공간을 구성
0m 2m 4m 6m 10m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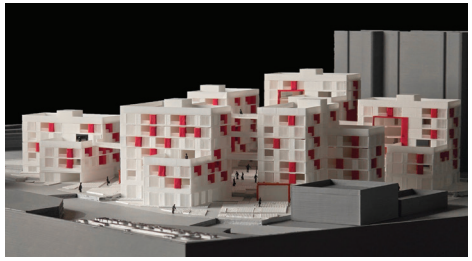
INTRODUCTION

많은 청년이 새로운 지역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계동 멘토링 하우스는 이주청년과 지역주민을 멘토-멘티 관계로 연결하여 지역 정착을 돕는 플랫폼이다. 하계동은 지형 높이차, 완충녹지, 이면도로의 기능 부족으로 그리드와 블록 내부가 단절되고 공공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이동 동선이 중첩되는 도시 그리드의 교차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생활 가로를 형성했고, 생활 가로와 도시 그리드를 연계하는 멘토 마당을 형성하였다. 멘토 마당은 청년과 지역 주민의 교류 공간으로, 육아 멘토, 주부 멘토, 학생 멘토 등 다양한 세대의 주민과 교류하는 멘토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주동 내부에는 3.8m×3.8m의 모듈을 회전시켜 사선으로 잘라낸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도와 주호를 구성하고, 사선 공간을 활용하여 모든 주호에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버퍼 공간인 마당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주호를 복층으로 계획하여 격층의 복도를 구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보이드를 통해 공유가로와 마당, 복도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공용 공간을 구성했다. 복층 주거유닛의 복도층은 개방 정도에 따라, 주거층은 가구의 가족구성에 따라 각각 3가지 타입으로 계획하였다. 각 유닛은 면적 기준이 아닌 '실'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평면을 계획하였고, 각 유닛의 조합으로 다양한 청년 생활과 가족 유형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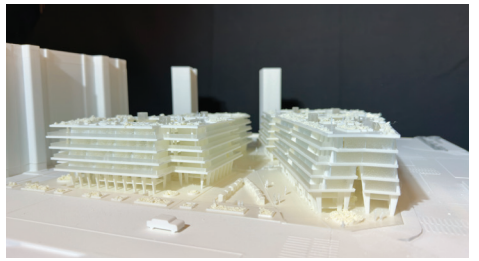
Creatively, Diagon-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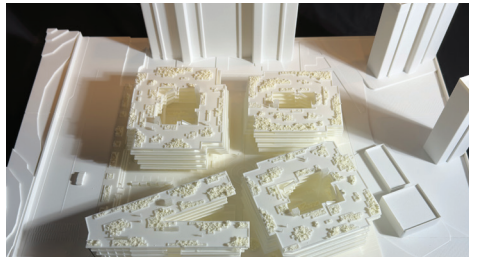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 이기범, 노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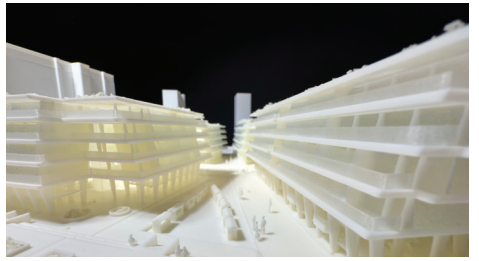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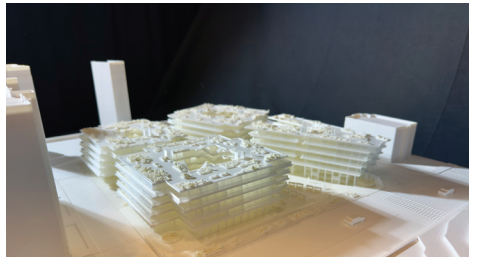












전환의 경계에 선 도시, 노원



노원구: 노동력을 위한 도시

노원구는 1980년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서울 도심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주거 단지 중심의 신도시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지만, 상업, 업무, 산업 기능은 부족했고, 결국 노원은 베드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낮은 주거비와 청년 유입, 그러나 단절된 삶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는 여전히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족기능이 부족한 도시는 긴 통근시간과 낮은 생활 밀도를 만들고, 이는 일상과 지역 커뮤니티의 단절로 이어진다.

노원구의 내일: 창의적 삶을 위한 도시로

과거 노동구가 노동력을 공급하던 도시였다면, 이제는 '창의력'을 돕는 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산업 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사람들과 활동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의 구조, 관계의 방식, 생활의 흐름이 바뀌어야 함을 뜻한다.

창의성은 골목에서 나온다.



우연한 만남 | 모임의 공간 | 휴식과 산책 | 문화와 여가

창의성은 공간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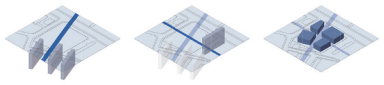
창의력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고, 머물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구조에서 비롯된다. 기능의 나열이 아닌, 경험이 켜켜이 쌓일 수 있는 장소 속에서 창의성이 자란다.

창의적인 도시는 공간적 여백을 허락한다

창의적인 도시는 공간의 여백을 허락한다. 빽빽한 일과 답답한 골목길은 사고를 압축하지만, 하늘로 트인이고 자연과 연결된 골목은 사고를 펼칠 수있는 장소이다.

어반 그리드 속 모서리 땅에서 끊긴 골목을 살리는 배치 과정

우리의 설계는 기존 도시의 그리드와 자연 지형에 따른 그리드를 바탕으로 시작한다. 사이트의 남과 북을 잇는 간선도로와 동서를 잇는 약 20도 틀어진 사선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그리드라는 점과 불암산 자락의 등고서선의 자연 지형은 이 대지와 주변환경의 경계를 정의한다.



사선의 도시 격자의 연장

동-서를 잇는 20도 틀어진 사선의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의 격자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모서리와 도시 블록사무를 잇는 골목을 구획 하고자 하였다.

간선도로 격자의 연장

한편, 간선도로와 맞닿은 도시의 격자는 남-북 수직의 격자를 지니고, 대상지에서 두 격자가 교차한다. 해당 격자는 남측 인접한 아파트의 동선과 연결된다.

골목길 격자의 반영

매스는 사선 격자와 직교 격자, 두 가지 도시 구조를 바탕으로 배치된다. 내부 골목은 이러한 격자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보행 동선의 기울이 된다.



비워냄을 통한 생활 환경 조성

중심부를 비워 형성된 중정은 환기와 일조 등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인다. 그러나, 폐쇄적인 형태는 도시와의 시각적·물리적 연계를 약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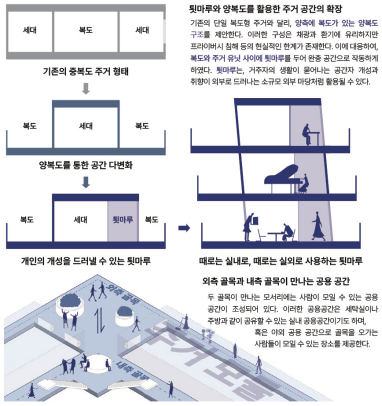
닫혀있던 모서리를 트다

닫혀있던 모서리를 뚜이기하여 중정을 열어준다. 개방된 모서리는 골목길의 흐름을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동선의 교차를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만남과 활동을 만들어낸다.

골목은 넓게, 마당은 아늑하게

건물은 상층부로 갈수록 안쪽으로 모여들게 된다. 골목에서는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고, 마당에서는 위요감을 느낄 수 있다.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만나는 주거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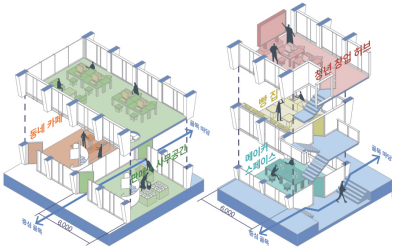
툇마루와 양복도를 활용한 주거 공간의 확장

기존의 단일 복도형 주거와 달리, 양측에 복도가 있는 양복도 구조를 제안한다. 이러한 구성은 개방과 환기에 유리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한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여, 복도와 주거 유닛 사이에 툇마루를 두어 완충 공간으로 작동하게 하였다. 툇마루는, 거주자의 생활이 묻어나는 공간자 개성과 취향이 외부로 드러나는 소규모 외부 마당처럼 활용될 수 있다.

청년의 도전을 담는 활기찬 골목, 저층부 모듈

현대 도시에서 공동주거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삶의 방식과 도시성과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기능이 분절된 주거 중심 지역에서는, 주거 외 활동을 수용하는 저층부가 도시의 활력과 장의적 생활 기반을 좌우하게 된다.

이에 청년의 도전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창의력 넘치는 복합적 저층부 모듈을 제안한다. 소규모 창업, 문화 활동, 커뮤니티 공간 등이 골목을 따라 확장되며, 이는 폐쇄된 주거단지가 아닌, 유연하고 열려 있는 도시 조직으로 작동한다.



복층형 비주거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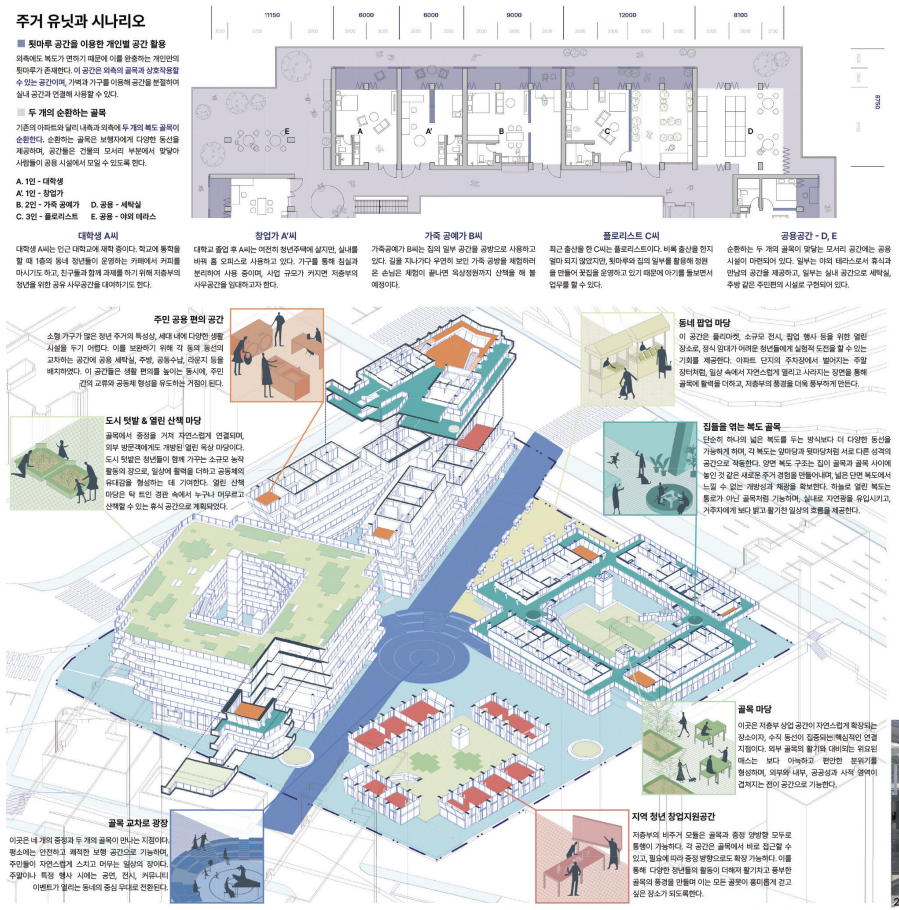
복층형 모듈은 6m 단위로 구성된 소형 비주거 공간이다. 소규모 창업이나 1인 비즈니스에 적합하도록 임대 단위를 최소화했으며, 필요 시 상층을 활용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변을 통해 구획하도록 계획하여 하나 이상의 유닛도 연결가능하며, 유연한 프로그램 배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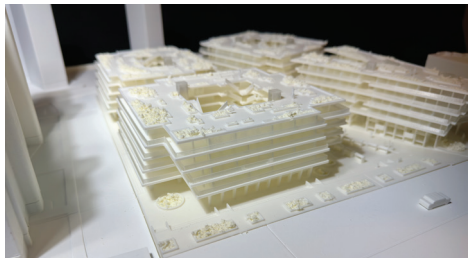
반지하형 비주거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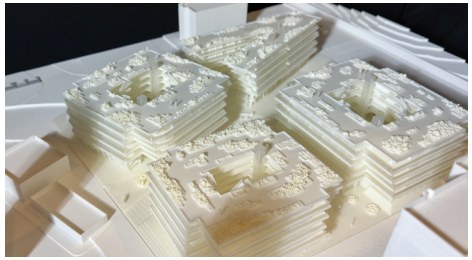
반지하형 모듈은 대상지의 경사 지형을 적극 활용한 모듈로,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골목에 면한 일면을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골목의 풍경또한 즐겁게 만드는 모듈이다.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며, 청년들의 실험적 활동이나 장착 기반 활동을 유도를 기대하는 모듈이다.

INTRODUCTION

노원구는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한 주거 중심지로 계획되었지만, 단일한 기능 배치는 지역을 베드타운으로 고립시키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문화, 창의 활동의 기반이 부족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절된 도시 구조와 주거의 폐쇄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골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수평과 수직, 외부와 내부, 공공과 사적 경계를 느슨하게 엮는 다층적 구조를 제안한다. 대상지는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와 동서를 비껴 흐르는 사선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에 위치하며, 불암산 자락의 자연지형이 중첩되어 있다. 이 복합적 조건을 바탕으로 도시 그리드와 자연의 콘투어 중첩한 'Diagonal Alley'를 제안한다. 대각선의 중심 골목은 블록 내부를 가로지르며 대지를 4개의 소필지로 나누고, 기존 도시의 흐름을 연장하는 동시에 모서리 대지의 미래 확장성과 유연한 도시적 변화를 수용하는 기반이 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카페, 스튜디오, 전시 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비주거 모듈을 배치하고, 중정과 골목을 향한 열린 배치로 가로 환경의 공공성과 도시의 활기를 끌어들인다. 주거 공간은 양복도 구조와 튓마루를 활용한 이면성 있는 구성으로 햇빛과 바람이 드나들고, 거주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골목 같은 복도를 만든다. 앞마당과 뒷마당처럼 다른 성격의 복도가 순환하며 연결되며, 복도의 교차점에 배치된 공용 공간은 일상 속 마주침과 공유를 유도한다. 옥상에 열린 산책 마당과 도시 텃밭을 통해 청년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심 골목의 교차로와 연결된 팝업 광장은 다양한 활동의 플랫폼이 된다. 'Creatively, Diagon-Alley'는 청년 주거를 단순한 기능적 집합이 아닌, 도시와 연결된 열린 구조로 재구성하는 실험이다.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골목 교차로 광장


서측 진입 마당을 통해 들어올 때 보이는 골목 전경


거주민과 도시민 모두가 만나는 중정


단순한 복도가 아닌, 마주침이 있는 공용부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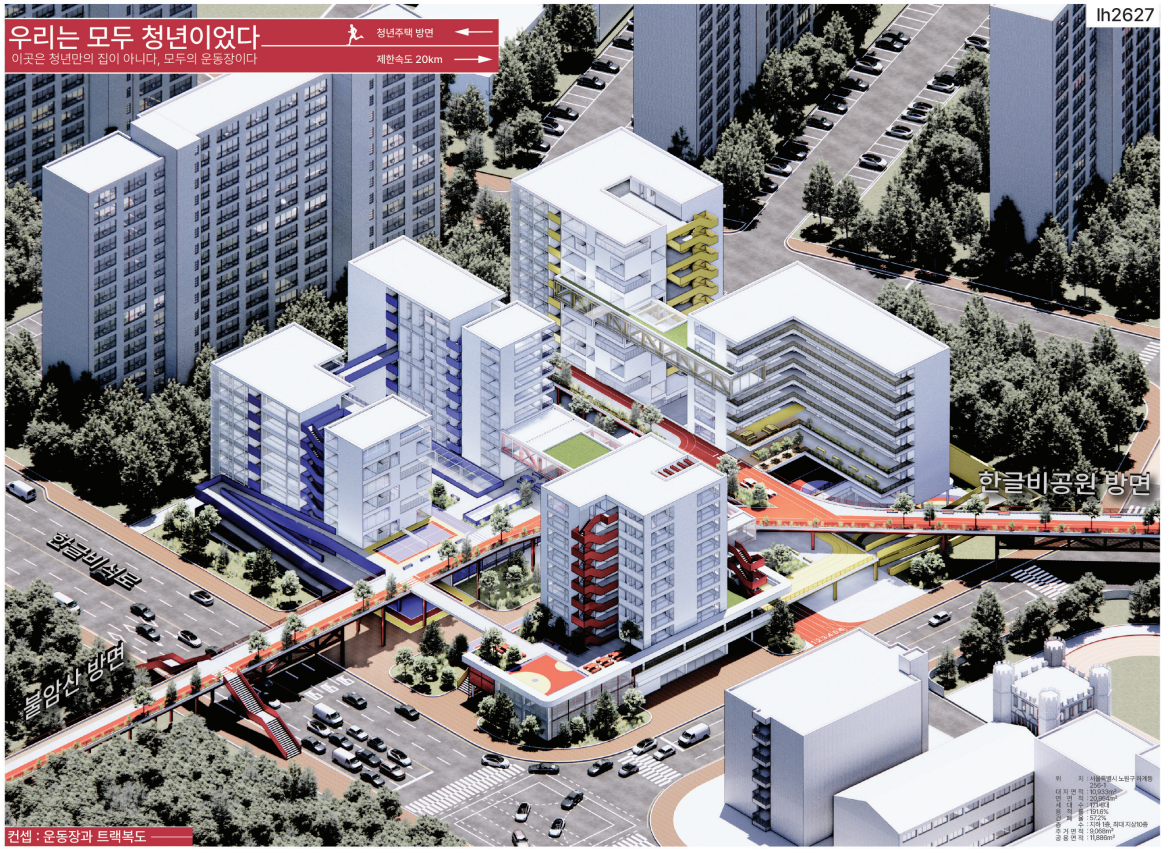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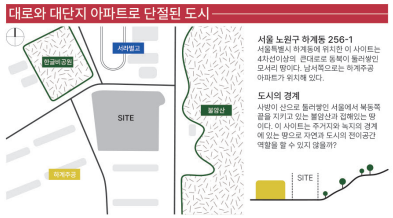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청년이었다 : 이곳은 청년만의 집이 아니다, 모두의 운동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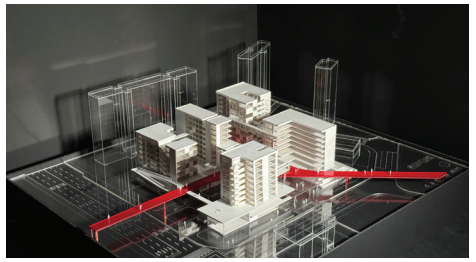
청주대학교 | 임민혁, 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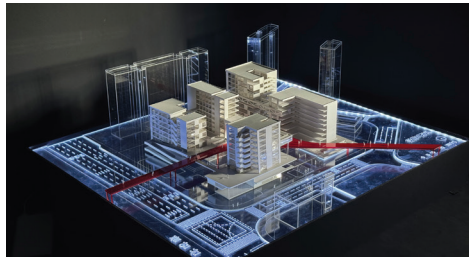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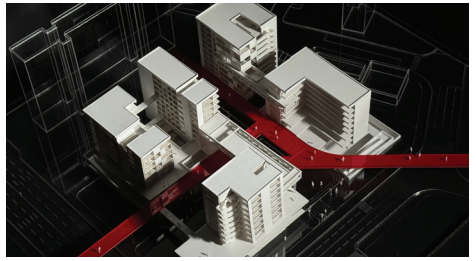














도시의 운동장이 되는 청년주택

청년과 도시를 잇는 운동장
우리의 공간은 운동장이다. 운동장은 과거부터 지역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다. 단절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가는 청년들이 운동장같은 공간에서 지역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안정감을 찾고 청년주거가 잘 정착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 주거지
새로운 제안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운동장
우리는 청년주거가 지역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도록 1층을 비워내고 저층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그리고 휴지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커뮤니티 시설은 트랙복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주거
도서관
스포츠시설
휴지원

트랙복도를 통한 도시연결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트랙복도에 녹지를 형성하여 도시경관에 기여하고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유도하였다.
유기적인 워골목을 형성하기 위해 도시와 주거지 그리고 불암산과 한글비공원을 연결하여 도시와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단절을 해소하였다.
단순 이동통로로써의 트랙복도가 아닌 커뮤니티 시설과 연결하여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였다.

청년들의 놀이터인 공중브릿지와 공유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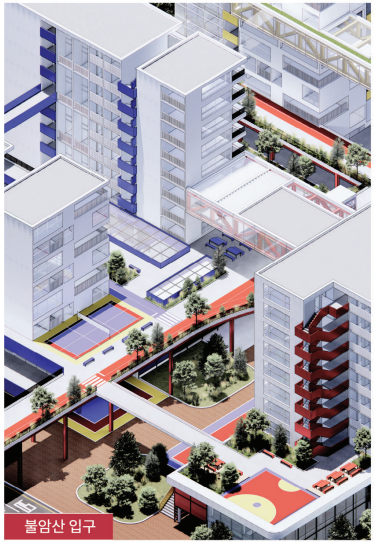
공중브릿지
개성이 강해지는 시대에서 고립보다는 소통과 교류를 선택하기로 했다. 고층화로 생기는 고립문제에 대응하여 중층부에 트라스구조를 활용한 공중브릿지를 통해 무주공간을 형성하였다.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공유오피스와 무한창작공간, 개성교류 공간을 통해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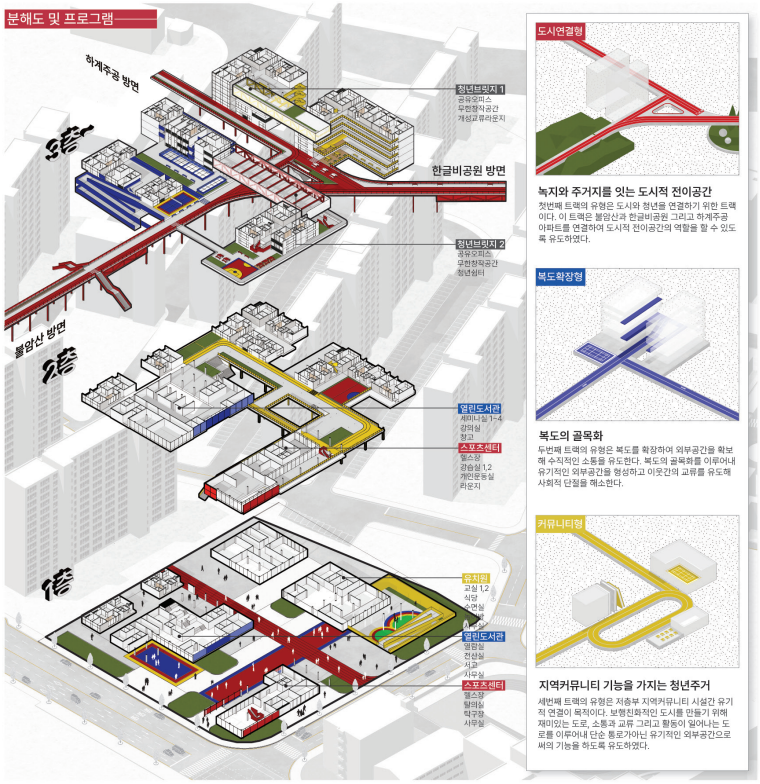
공유주방
트랙복도는 도시와 주거지 그리고 불암산, 한글비공원과 같은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단절을 해소하고 소통을 유도 하였다. 트랙복도는 단순 이동통로가 아닌 커뮤니티 시설과 연결하여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소통과 교류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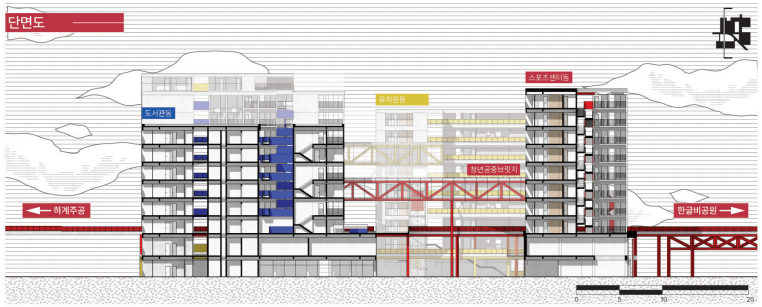
INTRODUCTION

'단절'되어 가는 사회 속에 청년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도시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동차 중심의 슈퍼블록 도시로 발전해 왔고, 요새화된 대단지 아파트는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단절시킨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청년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지역 커뮤니티로써의 청년주택을 제안한다. 우리는 운동장과 트랙복도의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의 공간은 도시의 운동장이며, 도시와 사람을 트랙복도로 연결한다. 운동장은 과거부터 지역민들이 모여 활동하며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운동장이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도록 저층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유치원을 구성하고, 트랙복도는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트랙복도는 도시와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단절을 해소하고, 외부공간과 연결하여 소통과 교류를 유도하고, 입체녹지를 통해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만든다. 청년 간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트러스구조를 활용하여 중층부 공중 브릿지에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무주공간의 형성으로 청년들은 더욱 가변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고를 하며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공유주방을 통해 기능 공간을 축소하고 생활패턴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였다. 복층으로 구성하여 트랙과 접하는 부분에 공유주방과 스테이션을 구성하여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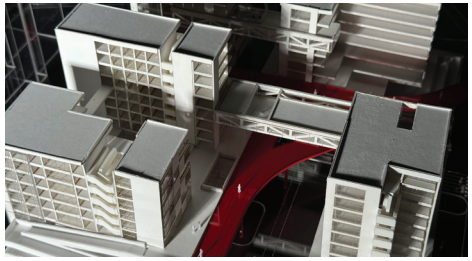












장려상

Fill the Alley, Feel the Alley: 하계동 경험친화형 청년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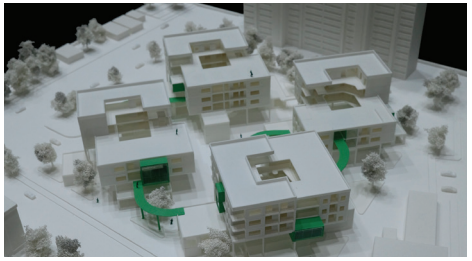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 고건, 이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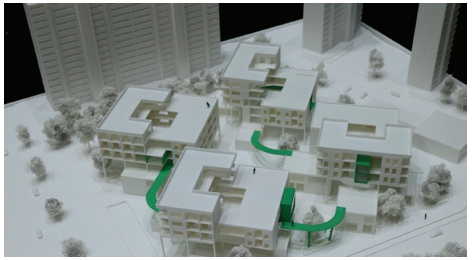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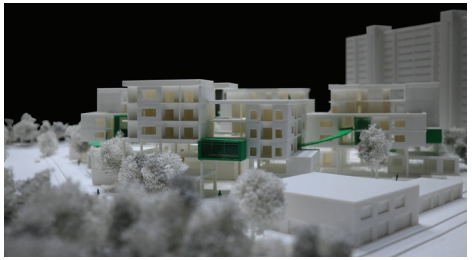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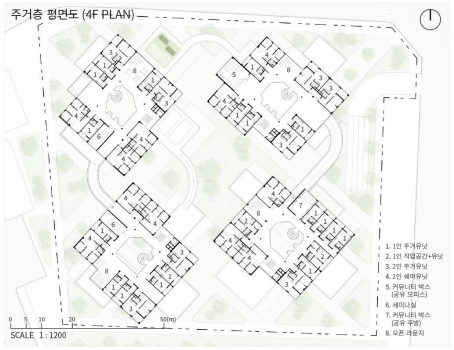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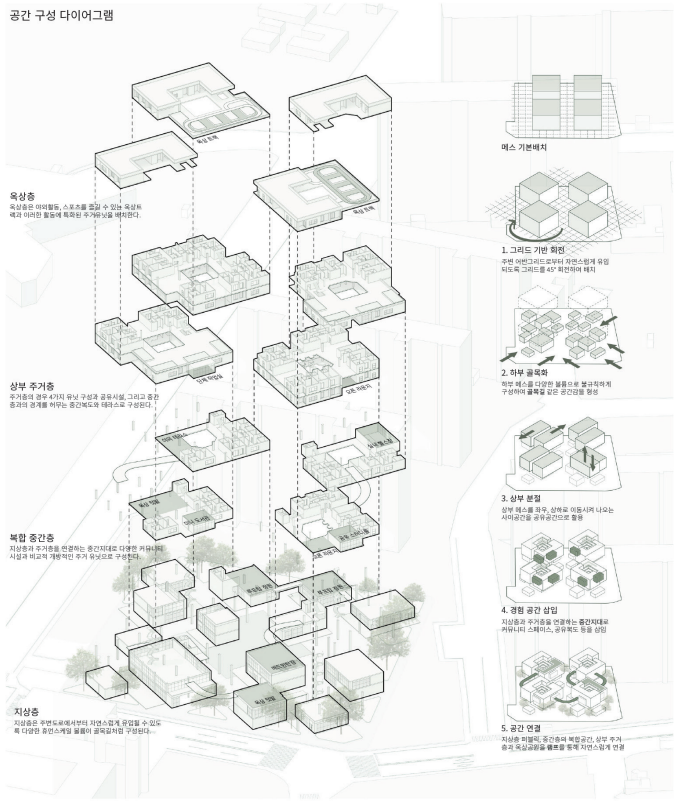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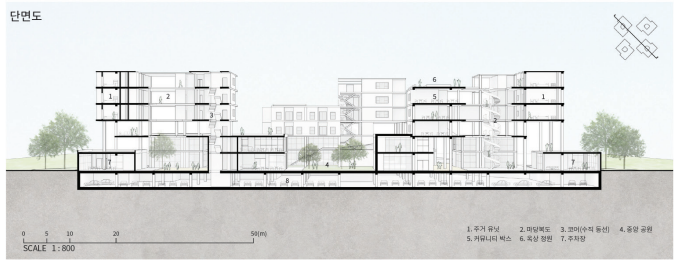
1980년대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로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와 차량 중심의 격자형 도시가 되었고, 어반앨리의 보행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도시가 활력을 띠기 위해 거리는 '이동'과 그 사이 '경험적 요소'를 동반하여야 한다. '앨리'는 삶과 일상 그리고 쉼이 공존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 간의 간섭과 중첩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내며 활기찬 거리를 만들어낸다. 도시 '앨리'를 회복할 주거의 대상은 '시작하는 청년들'이다. 이들에게 단순한 작업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열린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공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대상지 내의 그리드를 45도 회전하였다. 이를 통해 진입 각도가 줄어들어 자연스러운 유입과 흐름을 유도한다. 지상층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였고, 중간층에는 주거시설과 공공시설이 공존한다. 중간층은 저층부 앨리와 상층부 주거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층부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시설, 옥상층에는 녹지공간과 러닝트랙, 외부활동 요소를 배치하였다. 이들을 램프와 브릿지의 동선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였고, 복도는 중앙보이드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계획하였다. 기존 이동을 위한 복도는 이제 업무, 소통, 휴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마주침을 극대화한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능적도시는 경험 중심의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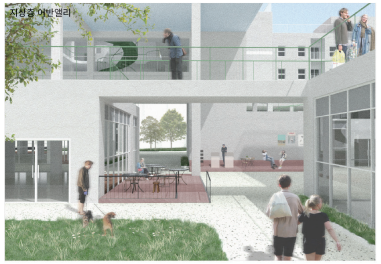


















장려상

Netwall House

국립부경대학교 | 공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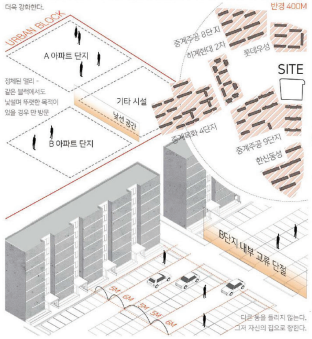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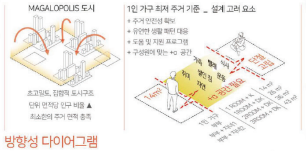




정체된 어반 앨리 _ 소수의 거주민을 위한 폐쇄적 영역



다가오는 메갈로폴리스 시대, 청년 가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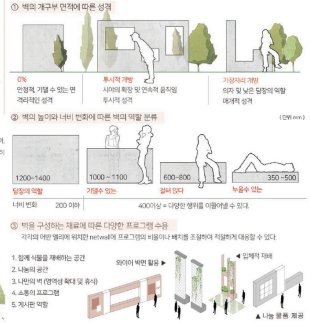


방향성 다이어그램



Netwall 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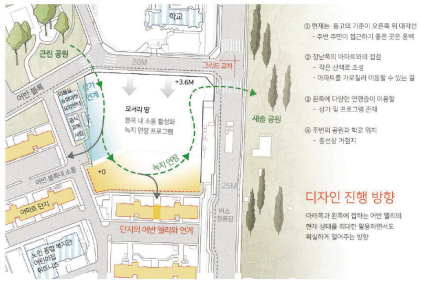
Netwall의 구성 방법 + 수용 프로그램



Netwall Alley 끌어들이고 연결하다.



모서리땅, 대상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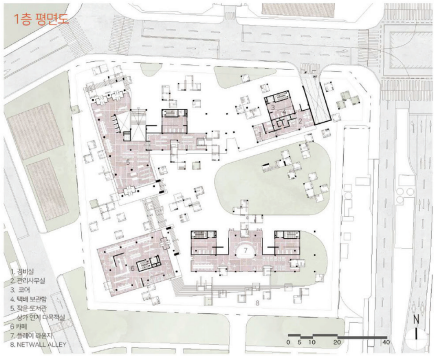
디자인 진행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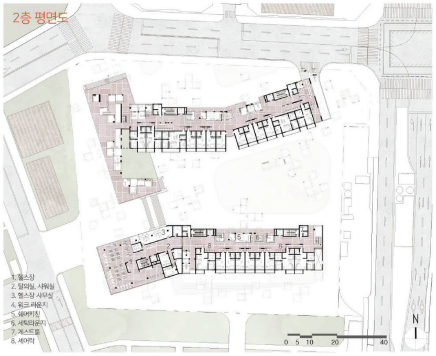
주거 유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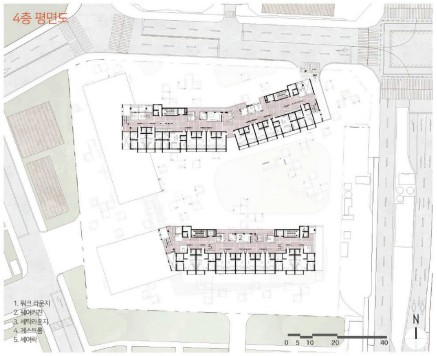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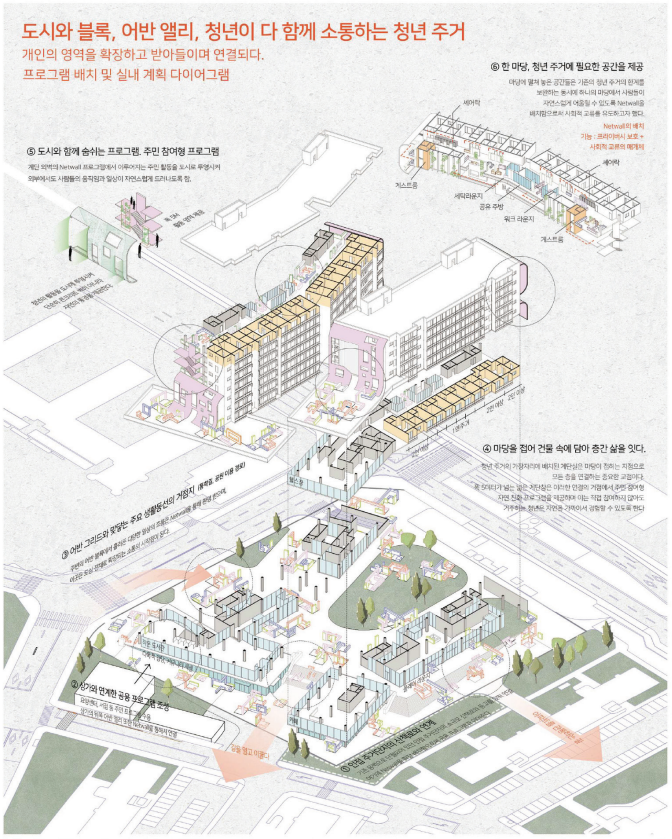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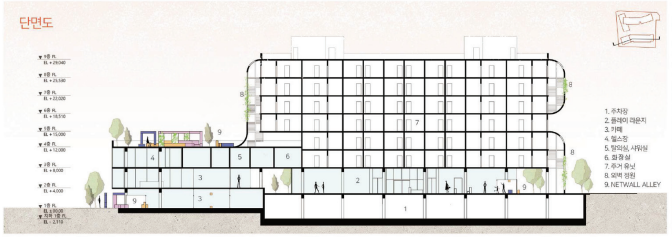
5~6미터의 도로와 그 주변을 단둘러싼 인도로 구성된 어반앨리는 보행 친화적이지도 않으며 보행자의 흥미를 끌지도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끼리도 서로 낯선 공간이 생길 정도로, 어반 앨리는 소수 사용자만을 위한 폐쇄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형태는 청년 주거의 고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다가올 초고밀도 사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Netwall House는 벽(wall)이 높이, 너비, 개구부의 위치, 다양한 재료와의 결합 방식에 따라 경계를 허물고 시야를 확장하여, 공간 간의 소통과 연결을 유도하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결망(Network)과 벽(wall)의 결합어인 Netwall은 단지 내 새롭게 재정의된 휴먼 활동 그리드(3m×3m) 안에 다채로운 구성 방식과 교류 프로그램을 담아 분산 배치된다. 이를 통해 협소한 공간에 고립되던 개인의 활동 영역은 단지 전체로 확장되며, 사용자는 단지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또한 간선도로에서 블록 내 어반앨리와 공용 프로그램까지 Netwall로 연결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또한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결과적으로 어반블록 내 소규모 필지들을 자연스럽게 잇는 사람 중심 공간으로 전환한다. 상층부는 마당으로 연결된 마을의 형태를 접어 건물 속에 담은 형태로, 5m 폭의 계단참과 마당에 공용 프로그램과 Netwall을 배치해 층간의 삶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개인의 영역을 확장하고, 타인과 연결되며, 어반블록과 어반앨리, 도시와 소통하는 새로운 청년 주거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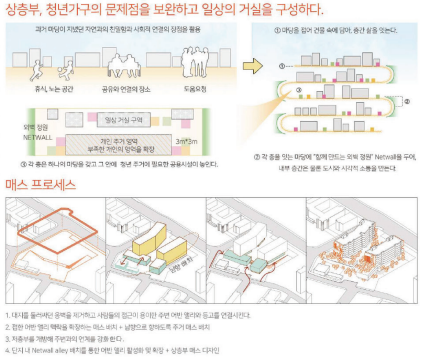






















장려상

스치는 하루, 머무는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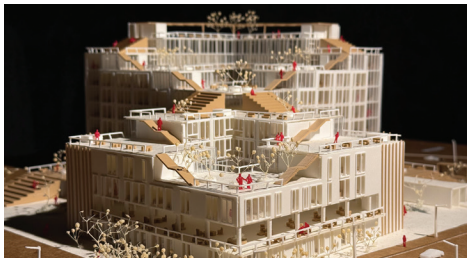
창원대학교 | 김나은, 정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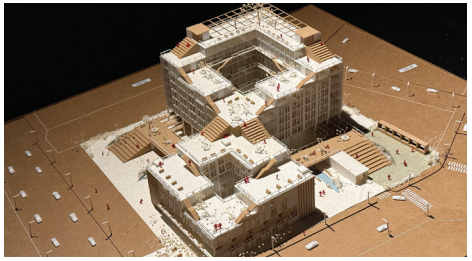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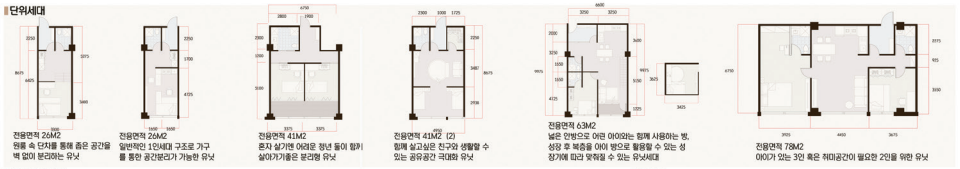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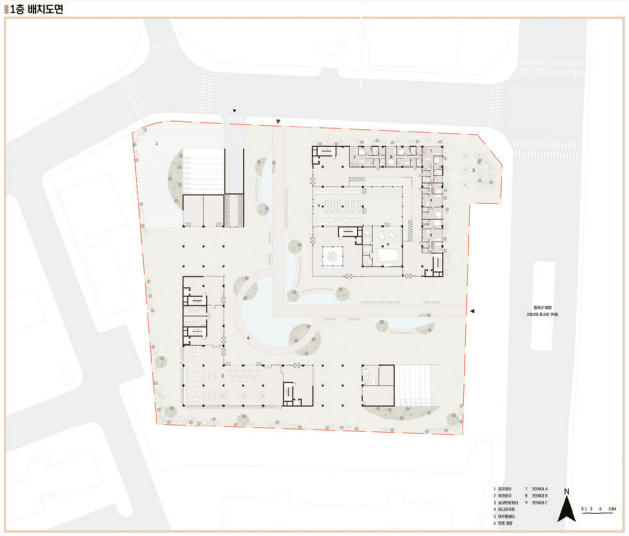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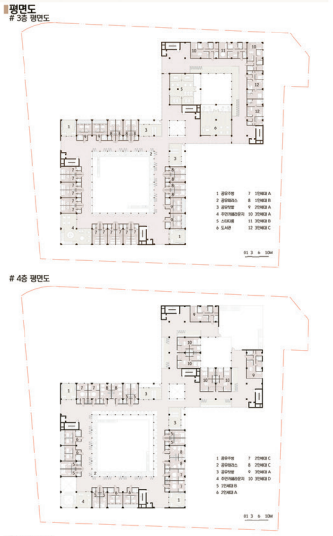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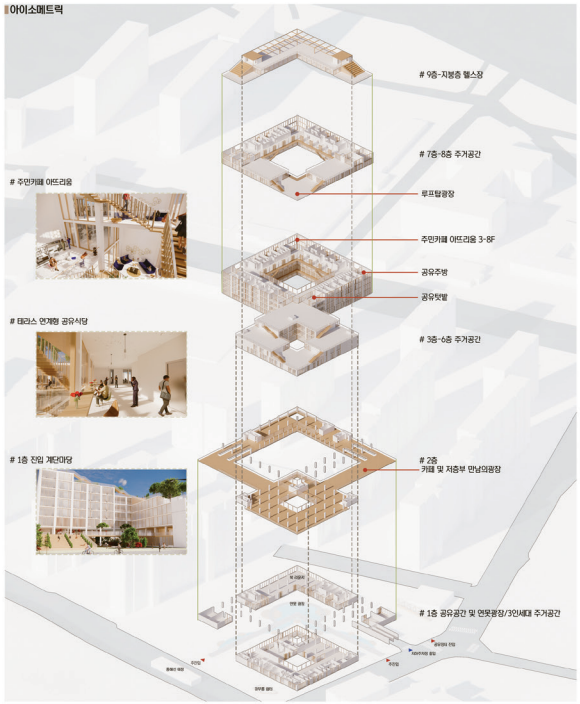
INTRODUCTION

현대 청년들은 높은 건폐율과 연면적으로 획일화된 단위세대에 적응하여 살아간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주변과의 물리적/심리적 단절은 익숙해지고 공동체 관계 형성의 기회는 희미해지고 있다. 획일화된 도시 속에서 작지만 유연한 틈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한다. 본 계획안은 청년 주거에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주방과 복도 확장형 테라스 (층간소통의 공간) : 식사 시간은 가장 일상적이고 관계를 맺기 좋은 순간이다. 공유주방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기반이 되어주고 복도 확장형 테라스는 폴딩도어 구성을 통해 실내외의 경계를 허물어주고 다른 층과 직접 연결함과 동시에 시각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공유텃밭 : 공유 텃밭은 단순히 노동의 측면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을 재구성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자연과 직접적 소통을 하는 과정은 반복되는 삶에 자연이라는 변화를 제공하고 주변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을 통해 일상의 벽을 허물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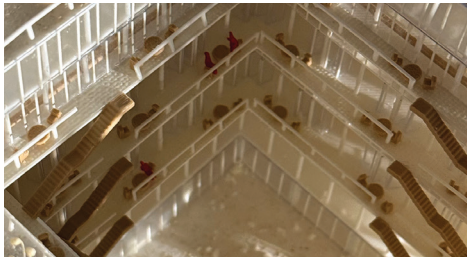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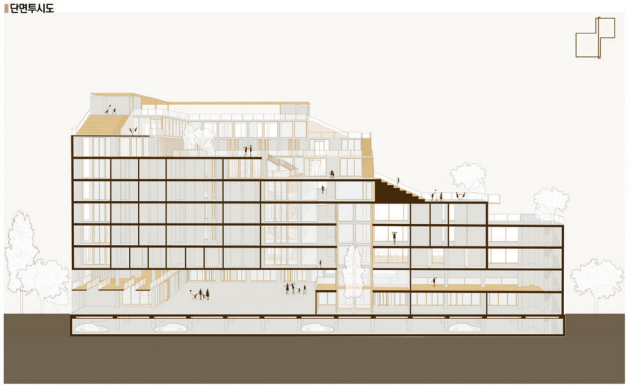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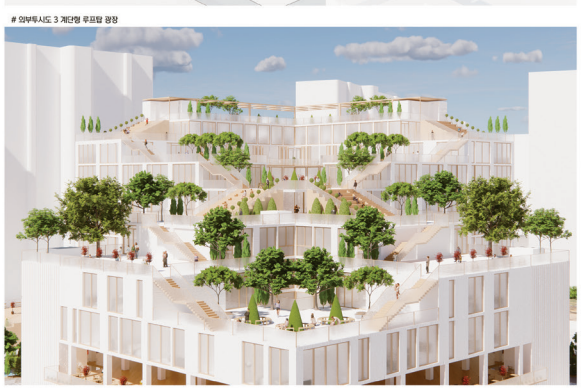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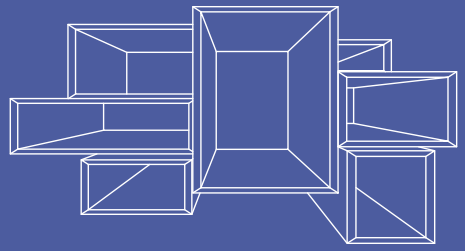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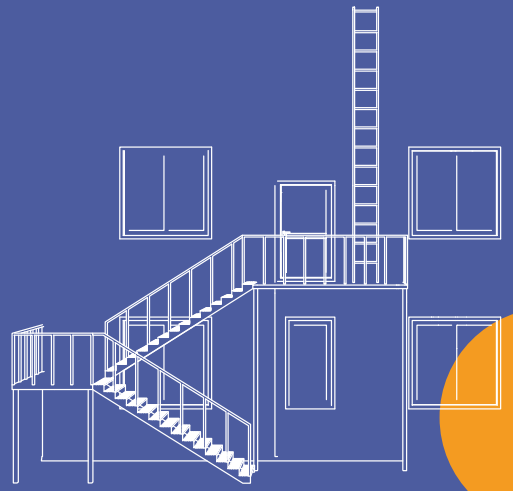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URBAN







03 GALLERY

- 갤러리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Urban Valley, Urban Alley :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우수상
2,000,000원
최우수상
3,000,000원
대 상
5,000,000원
우수상
2,000,000원
장려상
1,000,000원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URBAN
ALLEY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감사패 수여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Urban Valley, Urban Alley :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URBAN VALLEY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대 상
경상국립대학교 | 최한솔,성창민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an Valley, Urban Alley :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최우수상
3,000,000


URBAN VALLEY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대 상
경상국립대학교 | 최한솔,성창민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대 상
5,000,000원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Urban Valley, Urban Alley :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우수상
2,000,000원
2,000,000원


URBAN VALLEY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Urban Valley, Urban Alley :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장려상
1,000,000원
장려상
1,000,000원

GALLERY














집과 일의 사이
rking in a city
URBAN
ALLEY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2025. 12. 02
구보건축, 조윤희
URBAN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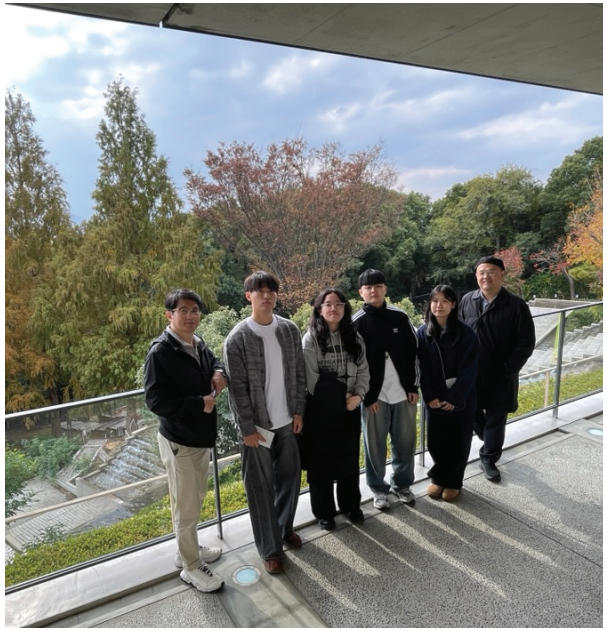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시상식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제29회 LH
청년주택
건축대전


LH 청년주택건축대전
수상 작품전
이 전시는 2025년 LH청년주택건축대전 설계부분에서 수상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Urban Valley, Urban Alley :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라는 주제 아래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주거와 도시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작품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도시의 골목과 골목기저팁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삶과 삶이 스며드는 공간을 제안합니다.
청년 세대의 상상력과 건축적 실험은
주택을 도시와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유·소통·지속가능성을 담은 주거의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청년 건축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도시와 건축, 사람과 자연을 연결 하는 창의적인 작품속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상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Fill the Alley, Feel the Alley






SHIK
MUR
MUSE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

발간일	2025. 12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펴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주택기술처	처장 박영남
	부장 엄기태
	차장 전수현
	과장 김윤정
홈페이지	www.lh.or.kr
전화번호	055) 922-5753
편집제작	제이트리웍스

※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29회 LH
청년주택건축대전

Urban Valley, Urban Alley: 청년주택, 도시와 연결되다